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혁명사상으로 철저히 무장하자!

로동신문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기관지

제119호 【루계 제25262호】 주체105(2016)년 4월 28일 (목요일)

당의 령도따라 내 나라, 내 조국을 더욱 부강하게 하기 위해 힘차게 일해나가자!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고 리영순동지의 령전에 화환을 보내시였다

우리 당과 인민의 최고령도자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항일혁명투사 리영순동지의 서거에 깊은 애도의 뜻을 표시하여 27일 고인의 령전에 화환을 보내시였다.

본사기자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 여러 나라 인사들이 선물을 드리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 태양절과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에 즈음하여 로씨야, 까타르, 쿠웨이트인사들이 선물을 드리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 드리는 선물을 로씨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의 련대성그루빠 책임자와 스뜨로이 꼼플렉스회사 총사장, 웨프유한책임회사 총사장, 까타르 키우키청부회사 총사장과 공업개발지구 알 파르단화폐교환소 지배인, 쿠웨이트 아흐마디아청부 및 무역회사 총사장이 3월 30일부터 4월 21일까지의 기간에 해당 나라에서 사업하고있는 우리 나라 특명전권대사와 관계부문 일군에게 각각 전달하였다.

본사기자

2017년 백두산위인칭송대회 준비위원회 여러 나라에서 결성

2017년 백두산위인칭송대회 준비위원회가 7일 로씨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의 련대성그루빠에서 결성되였다.

준비위원회 위원장으로 그루빠 책임자 메레제브가 선출되였다.

준비위원회는 2016년 4월 7일부터 2017년 4월 30일까지의 기간에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성스러운 혁명생애와 불멸의 업적을 칭송하는 다채로운 정치문화행사들을 조직하며 조선인민의 정의의 위업을 지지하는 련대성활동을 활발히 벌리기로 하였다.

* *

2017년 백두산위인칭송대회 페루준비위원회가 13일 리마에서 결성되였다.

준비위원회 위원장으로 페루공산당(붉은 조국) 국제비서 따니 발레르 로페라가, 서기장으로 페루조선친선문화협회 서기장 유리 까스뜨로 로메로가 선출되였다.

준비위원회는 2017년 백두산위인칭송대회를 계기로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불멸의 업적을 칭송하는 다채로운 정치문화행사들을 조직하기로 하였다.

* *

2017년 백두산위인칭송대회 슬로베니아준비위원회가 3월 31일 마리보시에서 결성되였다.

준비위원회 위원장으로 슬로베니아조선친선협회 위원장 이고르 유리씨크가 선출되였다.

준비위원회는 백두산절세위인들의 불멸의 혁명업적을 여러가지 형식과 방법으로 널리 소개선전하기로 하였다.

백두산절세위인들의 현지지도사적비 평양체육관에 건립

백두산절세위인들의 현지지도사적비 《만대에 길이 전하라 평양체육관이여》가 평양체육관에 건립되였다.

체육관에는 우리 체육인들과 인민들에게 보다 훌륭한 체육문화생활조건을 마련해주시려고 온갖 로고와 심혈을 다 바쳐오신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불멸의 혁명사적이 력력히 어리여있다.

평양체육관 일군들, 근로자들은 나라의 체육발전에 쌓아올리신 위대한 수령님들과 경애하는 원수님의 령도업적을 후손만대에 길이 빛내여갈 리없이 맑고 깨끗한 충정의 한마음을 안고 70일전투의 첫아진군을 다그치며 사적비를 짧은 기간에 정중히 건립하였다.

준공식이 27일에 진행되였다.

리종무체육상, 관계부문, 평양체육관 일군들, 종업원들, 체육인들이 준공식에 참가하였다.

참가자들은 먼저 백두산절세위인들의 현지지도사적비에 꽃다발들을 진정하였다.

체육성 당위원회 책임비서 신용철이 준공사를 하였다.

연설자는 백두산절세위인들의 현지지도사적비를 우러르는 우리모두는 평양체육관에 깃든 위대한 수령님들과 경애하는 원수님의 불멸의 령도사적을 가슴뜨겁게 돌이켜보게 된다고 말하였다.

그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체육인들을 위해 몸소 평양체육관 건설을 발기하시고 릉치수려한 보통강기슭에 그 터전도 잡아주시였을뿐아니라 여러차례 건설장을 찾으시여 방향과 방도를 환히 밝혀주시며 체육관을 로동당시대의 기념비적창조물로 일떠세워주시였다고 말하였다.

평양체육관관리운영사업에 깊은 관심을 돌리신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근로자들과 청소년들이 리용할 대중체육기재들과 문화오락기재들을 보내주시여 인민의 체육관으로서의 사명을 다하도록 극진히 보살펴주시였다고 그는 언급하였다.

그는 숭고한 도덕의리의 최고화신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위대한 수령님들의 불멸의 혁명사적이 깃들어있는 체육관을 시대의 요구에 맞게 개건할데 대하여 가르쳐주시고 국가적인 행사와 체육경기, 체육선수들의 훈련과 대중체육봉사를 진행할수 있는 다용도, 다목적의 체육관으로 꾸려주시였다고 말하였다.

연설자는 평양체육관 일군들과 종업원들이 백두산절세위인들의 혁명사적이 깃들어있는 영광의 일터에서 일하는 긍지와 자부심을 가슴깊이 간직하고 위대한 수령님들의 유훈과 경애하는 원수님의 숭고한 뜻을 높이 받들어나갈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그는 일군들과 종업원들이 당과 수령에 대한 백옥같은 마음을 안고 체육관관리운영사업을 끊임없이 개선하여 나라의 체육발전과 근로자들의 문화정서생활에 적극 이바지하여야 할것이라고 강조하였다.

준공식이 끝난 다음 참가자들은 현지지도사적비에 대한 해설을 듣고 비를 돌아보았다.

【조선중앙통신】

총공격전에 박차를 가하여 충정의 70일전투를 빛나게 결속하자

70일전투장에서 보내온 소식

다발적, 련발적으로 울리는 70일전투의 승전포성

전국적으로 1 640여개 생산단위들에서 당이 제시한 70일전투목표 돌파, 승리의 결승선에 련이어 돌입

승리의 5월을 향하여 천만군민이 폭풍노도처 내달리는 충정의 70일전투에서 당이 제시한 전투목표를 앞당겨 수행하는 승전소식이 련이어 전해져 무진막강한 선군조선의 위력이 힘있게 과시되고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전체 당원들과 인민군장병들과 인민들은 당에 대한 불타는 충정과 비상한 애국열의를 안고 총궐기하여 세기를 주름잡으며 최후승리를 향해 내달리는 조선의 기상과 본때를 힘있게 과시하여야 합니다.》

종합된 자료에 의하면 4월 20일현재 전국적으로 1 640여개 생산단위들에서 당이 제시한 전투목표를 돌파하였으며 그중 상반년도인민경제계획을 앞당겨 수행한 단위는 560여개, 년간인민경제계획을 완수한 단위는 70여개에 달한다. 지난 4월 상순에 비해볼 때 70일전투목표를 수행한 단위는 850여개나 더 늘어났으며 상반년도, 년간인민경제계획완수단위는 각각 230여개, 50여개나 더 장성하였다.

이 과정에 최근 10여일동안에만도 기본굴진과 자철정광, 연, 아연함유량, 비날론, 세멘트, 통나무, 일반천을 비롯한 수십개의 중요지표들에 대한 전투목표가 련이어 돌파되였다.

4월 중순에 들어와 당이 제시한 70일전투목표를 앞당겨 수행하여 승리의 대회장에 껑껑이 들어서려는 우리 인민의 영웅적기상과 열의는 더한층 고조되였다.

백두산영웅청년3호발전소건설에 떨쳐나선 백두산영웅청년돌격대원들은 청년강국의 주인공들로, 주체혁명위업의 맹장들로 내세워준 당의 크나큰 믿음을 심장에 새기고 결사관철의 낮과 밤을 이어가며 련일 새 기록을 창조하여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주신 명령을 넉달이나 앞당겨 끝냄으로써 지난해에 이어 또다시 새로운 영웅청년신화를 창조하였다.

박달나무도 얼어터질 혹한속에서도 굴함없는 공격정신으로 반년도 안되는 짧은 기간에 신념의 언제, 대기념비적수력구조물을 일떠세운 백두산영웅청년돌격대원들의 투쟁성과는 70일전투의 승리적결속을 위하여 용틀임하고있는 당원들과 근로자들의 로력투쟁을 크게 고무추동해주었으며 무한한 힘과 용기를 북돋아주었다.

인민경제 선행부문, 기초공업부문 일군들과 로동계급이 높은 증산실적으로 당중앙을 결사옹위하기 위한 총공격전의 불길을 세차게 지펴올리였다.

석탄공업부문 일군들과 로동계급이 위대한 수령님들의 유훈과 당정책을 뼈에 새기고 기본굴진과 준비굴진을 앞세워 많은 채탄장을 마련해놓고 일 석탄생산계획을 넘쳐 수행하며 전진하였다. 특히 개천지구탄광련합기업소를 비롯한 6개의 탄광련합기업소와 수십개의 탄광들에서 종전에 비할바없는 높은 생산실적을 기록하며 드센 공격전을 벌려 70일전투목표를 앞당겨 끝내였다.

금속공업부문 로동계급도 70일전투에서 영예로운 승리자가 될 기상안고 생산적앙양의 거세찬 열풍을 일으켰다.

황철로동계급은 주체의 신념과 의지로 산소열법용광로를 만가동시켜 당이 제시한 선철생산목표를 기어이 돌파하는 위훈을 세웠다.

천리마제강련합기업소 로동계급도 경쟁속에 비약하는 집단적혁신을 일으켜 주체철생산목표를 앞당겨 수행하였으며 금속공장들에 더 많은 철광석을 보내주기 위한 힘찬 투쟁을 벌려온 무산광산련합기업소 일군들과 로동계급은 박토처리를 앞세우고 채굴연선마다에서 립체전을 들이대여 당이 제시한 철정광생산목표를 성과적으로 점령하였다.

나라의 동맥이며 인민경제의 선행관인 두줄기 궤도우에서 증송의 기적소리가 높이 울려퍼지였다.

철도운수부문의 일군들은 애로와 난관이 수시로 앞을 가로막았지만 수송조직과 지휘를 그 어느때보다 치밀하게 짜고들어 인민경제 중요공장, 기업소들에 필요한 원료와 연료, 자재수송에서 혁신을 일으키도록 하였다.

각지 수송전사들은 일명, 주변수송목표를 높이 세우고 경쟁열풍을 세차게 일으켜 70일전투 화물수송계획을 넘쳐 수행하였다.

검덕광업련합기업소에서 뜻깊은 태양절을 맞으며 연, 아연함유량생산을 넘쳐 수행하였으며 림업, 기계공업부문에서 통나무, 베아링생산과제들이 련이어 수행되고 2.8비날론련합기업소에서 비날론생산계획을 기한전에 완수하는 자랑찬 성과가 이룩되였다.

70일전투기간 경공업성, 식료일용품업성, 수산성의 일군들과 로동계급이 인민생활향상에서 결정적돌파구를 열어제낄 불타는 열의밑에 산악같이 일떠서 일반천, 양말, 비누, 학습장을 비롯한 많은 인민소비품생산계획과 수산물생산목표를 자랑스럽게 돌파하였다.

특히 김정숙평양방직공장 일군들과 로동계급은 전투가 시작된 첫날부터 새 기준, 새 기록을 창조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려 새로운 염색직물수세방법을 비롯한 여러건의 가치있는 기술혁신안을 받아들이고 수입에 의존하던 실꼬치기계회전팔을 자체의 힘으로 개조하여 설비가동률을 높임으로써 맡겨진 일반천생산계획을 넘쳐 수행하였다.

위대한 당의 령도따라 어제와 오늘, 아침과 저녁이 다르게 다계단의 변을 일으키며 전진하는 내 조국땅우에 눈부신 비약과 거창한 혁신의 기상은 날이 갈수록 활화산마냥 타번지고있다.

본사기자 리혈옥

중량페루생산 시작, 성과 확대 황해제철련합기업소에서

내 조국땅우에 하루하루가 풀라보게 비약하는 만리마속도가 창조되고있는 격동적인 시기에 황해제철련합기업소에서 해산—삼지연넓은철질건설장에 보내줄 중량페루생산에서 성과를 확대하고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조선혁명은 하늘이 주는 신비한 힘에 의해서가 아니라 일편단심 당을 따르고 옹위하는 영웅적 김일성-김정일로동계급을 비롯한 우리 인민의 위대한 힘에 떠받들려 전진합니다.》

현지에서 보내온 소식에 의하면 주체철생산과 강철생산에서 새 기준, 새 기록을 창조하며 페루생산을 위한 만단의 준비를 갖춘 이곳 일군들과 로동계급이 지난 24일까지 페루짠관생산을 끝내고 중량페루생산에 진입하여 일대 혁신을 일으키고있다.

황해제철련합기업소에서 다계단으로 일어나는 자랑찬 성과는 위대한 당의 령도가 있고 위대한 수령님들께서 한평생을 바치시여 마련해주신 주체공업의 거대한 잠재력과 우리의 영웅적 김일성—김정일로동계급, 과학자, 기술자들의 가슴마다에 뜨겁게 끓어번지는 불타는 충정의 마음, 불굴의 정신력이 있으면 무에서 유를 창조하고 이 세상에 못해낼 일이 없다는 것을 다시한번 웅변적으로 보여주고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주체102(2013)년 11월 유서깊은 혁명의 성지 삼지연군에 불멸의 자욱을 새기시고 조선혁명의 시원이 열린 백두산아래 첫 동네에서부터 사회주의만세소리, 로동당만세소리가 더 높이 울려퍼지게 하실 휘황한 전망을 펼쳐주시였다.

해산—삼지연넓은철질건설이 가지는 중요성을 명심한 련합기업소당조직에서는 중량페루생산을 위한 주요전투현장들에 능력있는 일군들을 파견하고 대중의 심장에 불을 다는 화선식정치사업을 참신하게 진행하였다.

당의 전투적호소를 높이 받들고 산악같이 일떠선 황해제철련합기업소 일군들이 해산—삼지연넓은철질공사장에 보내줄 중량페루를 제기일에 원만히 생산보장하기 위한 작전과 지휘를 짜고들었다. 특히 주체철생산체계를 더욱 완비하여 선철생산량을 늘이고 초고전력전기로의 가동률을 최대한 높이면서 차지당 강철생산량을 지난 시기보다 1.4배로 늘여 중량페루생산에 필요한 철강재를 충분히 확보하였다.

중량페루생산을 맡은 조강직장의 일군들과 로동계급이 백두의 혁명정신, 백두의 칼바람정신으로 지난 24일까지 짠관생산을 끝낸데 이어 중량페루생산에서 련일 혁신을 일으키고있다.

중량페루생산의 선행공정을 맡은 가열작업반의 로동계급은 가열로의 압력과 랭각수관리를 정상화하여 페루생산에 필요한 온도를 원만히 보장해주고있다.

압연작업반원들도 우리의 전진을 가로막아보려고 미쳐날뛰는 원쑤들의 제재책동을 자력자강의 힘으로 쳐갈기며 중량페루생산을 기술규정의 요구대로 진행하고있다. 특히 교대가 교대를 도와주고 신입기대공들이 고급기능공들을 따라배우기 위한 운동의 불길속에 압연주기가 줄어들고 페루의 생산성이 이전에 비하여 훨씬 높아졌다.

지단작업반, 제품처리작업반을 비롯한 직장안의 로동계급도 오늘의 70일전투의 영예로운 승리자가 될 일념으로 설비관리, 기술관리를 짜고들어 중량페루생산을 늘이는데 적극 이바지하고있다.

전혁철

《황금해》호계렬의 고기배를 새로 무었다 흥원조선소에서

당의 사상관철전, 당정책옹위전에 떨쳐나선 흥원조선소의 일군들과 로동자, 기술자들이 충정의 70일전투의 첨예진군속도를 부단히 높여 짧은 기간에 현대적인 《황금해》호계렬의 고기배를 무어내는 자랑찬 성과를 거두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수산부문에서 황금해의 새 력사를 창조한 인민군대의 투쟁기풍을 따라배워 수산업을 결정적으로 추켜세우며 물고기대풍을 마련하여 인민들의 식탁우에 바다향기가 풍기게 하여야 합니다.》

조선소의 일군들과 로동자, 기술자들은 당 제7차대회를 전례없는 로력적성과로 맞이하기 위한 투쟁에 한사람같이 떨쳐나섰다.

지난해 《황금해—1》호를 무어 바다에 띄운 이들은 뜻깊은 올해에 《황금해》호계렬의 고기배들을 더 많이 무어낼 높은 목표를 내걸었다.

수산성과 신포원양수산련합기업소 당위원회의 적극적인 지도방조밑에 이곳 일군들과 로동자, 기술자들은 자강력제일주의를 높이 들고 막아서는 애로와 난관을 뚫고나가면서 하루하루를 충정과 위훈으로 수놓아왔다.

첨입식정치사업으로 온 조선소가 부글부글 끓는 속에 모든 당, 행정, 기술일군들이 야전형의 지휘성원이 되여 제기되는 문제들을 앞장에서 풀어나가면서 로동자, 기술자들을 위훈창조에로 힘있게 조직동원하였다.

조선소의 로동자, 기술자들은 30m에 달하는 함형롱골제작을 한주일만에 완성하고 60여개의 대발침목과 50여점의 배무이용지구와 공구들을 제작설치하여 배무이준비를 짧은 기간에 결속하였다. 그 기세로 본격적인 전투에 들어간 이들은 대중적기술혁신운동을 힘있게 벌려 수십건의 창의고안, 합리화안들을 창안도입하여 원가를 줄이고 시간을 단축하면서 선체제작과 각종 부속품들과 부대설비가공에서 련일 혁신을 일으켰다.

조선소의 일군들과 로동자, 기술자들은 련판단위와의 긴밀한 련계밑에 새로운 방법에 의한 물안내판과 선미로파, 감속기제작설치를 비롯하여 제기되는 문제들을 과학기술에 의거하여 풀어나감으로써 배무이속도와 질을 높은 수준에서 보장하였다.

신포고기배설계연구소와 홍남배부속품공장, 양화수산사업소를 비롯한 련판단위들에서는 설계와 자재, 설비와 부속품들을 앞질러가며 보장해주었다.

흥원조선소 로동계급이 당 제7차대회에 드리는 충정의 로력적선물로 마련한 현대적인 고기배를 27일 바다에 띄웠다.

특파기자 박동석

화차제작과 객화차수리목표 수행 원산철도차량련합기업소에서

원산철도차량련합기업소의 일군들과 로동자들이 화차제작과 수리에서 전례없는 위훈을 창조해나가고있다.

종합된 자료에 의하면 련합기업소의 일군들과 로동자들은 전인민발의 의지안고 떨쳐나 70일전투 화차제작과 객화차수리, 대상설비생산목표를 수행하는 자랑찬 성과를 거두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경제강국건설에서 전환의 돌파구를 열자면 전력, 석탄, 금속공업과 철도운수부문이 총진격의 앞장에서 힘차게 내달려야 합니다.》

련합기업소당위원회에서는 충정의 70일전투에 떨쳐나선 대중의 앙양된 열의에 맞게 화차생산에서 전례없는 혁신이 일어나도록 일군들과 로동자들을 불러일으키는 화선식정치사업을 힘있게 벌리였다.

련합기업소당위원회의 지도밑에 일군들모두가 전투현장에 나가 대중을 불러일으키기 위한 정치사업을 여러가지 형식과 방법으로 진행하였다.

당 제7차대회를 전례없는 로력적성과로 맞이할 열의에 넘친 련합기업소의 모든 단위들에서 사회주의경쟁의 불길을 세차게 일으키며 화차생산전투를 힘있게 벌려나갔다.

화차생산의 선행공정을 맡은 주강공장의 일군들과 로동자들은 전기로의 정상가동을 위한 준비를 빈틈없이 갖추고 교대당 두차지의 쇠물을 생산하여 화차생산에 필요한 주강품들을 제때에 생산보장하였다.

단조직장의 일군들과 로동자들은 머질이 절려야 한다던 가열로보수를 6시간동안에 끝내여 화차생산에 필요한 단조품들을 제때에 생산보장하였다.

가공공정을 맡은 단위들에서도 서로 돕고 이끄는 집단주의정신으로 맡겨진 생산계획을 매일 2배이상 넘쳐 수행하였다.

1, 2가공직장에서는 로동자들의 기술기능수준을 높이고 화차생산에 필요한 각종 부속품들을 질적으로 가공하여 맡겨진 과제를 앞당겨 수행하였다.

화차조립분공장의 일군들과 로동자들은 생산조건을 주동적으로 마련하고 매일 맡은 화차조립과제를 그날로 어김없이 수행하여 상반년인민경제계획을 남먼저 끝내는 성과를 거두었다.

대차직장을 비롯한 련합기업소의 모든 단위들에서도 로력조직과 생산지휘를 짜고들고 가치있는 기술혁신안을 적극 받아들여 70일전투기간에 수행하여야 할 화차생산과 대상설비생산계획을 앞당겨 끝내였다.

지금 련합기업소의 일군들과 로동자들은 이미 거둔 성과를 공고히 하면서 더 높은 목표를 내걸고 힘차게 내달리고있다.

글 및 사진 현지보도반

불패의 당, 위대한 령도

혁명적학습열풍으로 대고조진군의 승리를 떨치시여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를 향한 총정의 70일전투가 마지막직선주로에 들어서고 전례없는 큰지금직한 혁신적성과들이 온 나라를 기쁘게 하고있는 가운데 혁명적학습열풍도 더욱 세차게 일어번지고있다.

수령의 혁명사상과 업적을 심장깊이 체득하고 사상전의 불길을 더욱 높여 불굴의 사상정신력과 무궁무진한 창조적능력을 최대한 발휘하려는 천만군민의 열정은 하늘에 닿고있다.

조국수호의 총대 번뜩이는 하늘과 땅, 바다호소들과 공장과 기업소, 건설장, 농촌과 외진 섬마을 등 이 땅 어디에서나 당의 혁명사상과 그 구현인 당정책으로 무장하기 위한 학습열풍으로 들끓는 오늘의 격동적인 현실은 일찌기 항일유격대식학습방법의 위력을 통찰하시고 온 나라에 혁명적학습기풍을 세우도록 하신 위대한 장군님의 불멸의 업적에 대하여 다시금 돌이켜보게 한다.

《전당이 학습하자!》

《생산도 학습도 생활도 항일유격대식으로!》

우리 당이 제시한 이 구호를 높이 들고 학습을 한시도 중단하지 않고 정치사상적으로, 기술실무적으로 철저히 준비하였기에 우리 인민은 언제나 승리할수 있었다.

어버이수령님께서 항일의 불길속에서 창조하신 학습방법을 혁명발전의 새로운 요구에 맞게 빛나게 계승발전시키시여 당사상사업에서 근본적인 전환을 일으키고 대고조진군의 승리를 떨치신 위대한 장군님의 불멸의 업적이 총정의 70일전투기록장을 안고 승리와 영광의 당대회장으로 가는 천만군민의 심장속에 새겨져 빛나고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전사회적으로 학습기풍을 세우기 위한 된바람을 일으켜야 하겠습니다.》

혁명가에게 있어서 수령의 사상은 귀중한 정신적량식이며 투쟁의 지침이다. 수령의 혁명사상을 확고한 신념으로, 자기의 뼈와 살로 만들어야 온갖 시련과 난관이 앞을 가로막는 속에서도 혁명의 길을 끝까지 갈수 있으며 수령의 전사로서의 본분을 다할수 있다.

혁명과 건설을 전진시켜나가는데서 사람들의 정신력발동을 기본으로 보고 대중의 사상정신적힘을 남김없이 발휘해온 우리 당은 언제나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수령의 혁명사상으로 무장시키기 위한 학습에 선차적인 힘을 넣어왔고 혁명적학습열풍으로 대고조진군의 승리를 이룩해왔다.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김일성-김정일주의학습열풍속에 생산과 건설에서 기적적인 성과들을 이룩해가고있는 모습을 대할수록 우리 장군님께서 항일혁명의 나날에 창조되고 그 우월성이 높이 발휘된 항일유격대식학습방법을 구현하도록 하시여 온 나라가 학습열풍으로 끓어번지던 1970년대의 나날들이 추억속에 새겨진다.

당사업을 정력적으로 령도하시면서 우리 장군님께서 제일 중시하신 문제가 바로 사상교양사업이였다.

주체62(1973)년 봄 어느날이였다.

문화예술부문의 한 일군으로부터 당사업정형에 대하여 료해하시던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사상사업에서 당원들과 예술인들을 우리 당의 혁명사상으로 무장시키는것이 선차적과업이며 모든 사업의 첫 공정이라고 말은 많이 하지만 학습에서는 아직도 의연히 낡은 방법을 그대로 답습하고있다는것을 간파하시였다.

당사상교양사업에서의 본질적결함을 깊이 헤아리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당사상사업의 돌파구는 전당에 혁명적학습기풍을 철저히 세우는데 있다, 여기에서 가장 좋은 방법은 항일유격대식학습방법을 계승하고 구현하는것이라고 명철하게 밝혀주시였다. 그러시면서 항일유격대식학습방법을 계승하고 구현한다는것이 어떤것인가를 예술영화 《유격대의 오형제》에서 나오는 음격근거지야학방의 한 장면을 실례로 실감있게 이야기해주시였다.

영화에서는 야학생들이 바다편과 땅편으로 갈라져 경쟁적으로 우리 나라의 바다와 땅을 지킨다. 이 과정에 그들은 우리 나라가 얼마나 좋은 나라인가, 그런 아름다운 금수강산이 일제침략자들의 피묻은 구두발에 여지없이 짓밟히고있다, 그러므로 모두가 힘을 합쳐 원쑤를 때려부시고 자원이 풍부한 아름다운 조국땅을 되찾아야 한다는 인식을 더욱 똑똑히 가지게 된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일군에게 그것이 항일유격대식학습방법 즉 문답식학습방법이라고 하시였다.

학습경연의 절차와 방법에 대해서도 일일이 가르쳐주시고 그 본보기단위까지 친히 정해주시면서 항일유격대식학습방법, 문답식학습방법을 구현하여 온 사회에 혁명적학습기풍을 더욱 철저히 세우도록 이끌어주시는 위대한 장군님의 세심한 지도에 의해 문화예술부문에서 첫 시범이 창조되였다. 학습경연대회에 참가한 예술인들은 신심에 넘쳐 문답의 방법으로 경연을 진행하였다. 서로 묻고 대답하며 보충토론을 해나가는 그들의 모습은 밀림속에서 열띤 토론을 하며 학습열풍을 일으키던 투사들의 모습그대로였다.

주체62(1973)년 11월 당과 국가건설사업으로 바쁘신 속에서도 몸소 제1차 전국예술인학습경연대회에 참석하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항일유격대식학습방법을 널리 받아들여 혁명적학습기풍을 세우는데서 새로운 전환을 일으킬데 대한 강령적인 연설을 하시였다.

문답식학습방법의 우월성은 어데 있습니까?

그것은 첫째로, 학습에서 형식주의, 교조주의의 낡은 방법을 철저히 없애고 학습을 실속있게 조직함으로써 하나를 배워도 똑똑하게 배워 혁명적량식으로 체득하도록 한다는데 있습니다.

둘째로, 광범한 대중의 학습열의를 높이고 학습을 대중자신의 사업으로 전환시킴으로써 대중을 당의 유일사상으로 튼튼히 무장시키는 사업을 성과적으로 실현할수 있게 한다는데 있습니다.

셋째로, 학습에서 집단적인 통제와 동지호상간의 방조를 강화함으로써 학습을 게을리하는 현상을 없애고 온 집단에 혁명적학습기풍을 튼튼히 세우도록 한다는데 있습니다.

넷째로, 학습을 실천과 결부하여 진행함으로써 대중을 혁명과업수행에 성과적으로 조직동원할수 있게 한다는데 있습니다. …

위대한 장군님의 강령적연설은 우리 당사상사업을 발전하는 현실의 요구에 따라세우고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수령의 혁명사상으로 더욱 철저히 무장시키기 위한 학습에서 근본적인 전환의 계기를 열어놓게 한 귀중한 사상리론적무기였다.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항일유격대원들처럼 학습을 첫째가는 과업으로 제기하고 학습을 생활화, 습성화하도록 하는데 깊은 관심을 돌려오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이 전통적인 학습방법을 전당에 일반화하도록 하시였다.

얼마전 우리와 만났던 중앙기관의 한 일군은 제1차 전국학습경연대회가 진행되던 40여년전의 그 나날이 잊혀지지 않는다고 하면서 온 나라가 문답식학습열풍으로 들끓던 때를 격정에 넘쳐 들이켜보았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항일유격대식학습방법을 널리 받아들여 김일성주의학습에서 새로운 전환을 이룩할데 대한 력사적연설을 하신 1돐을 앞둔 어느날이였다. 일군들로부터 제1차 전국학습경연대회를 진행하려고 한다는 보고를 받으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아주 좋은 말기라고 하시면서 학습경연을 통이 크게 조직할데 대하여 가르쳐주시였다.

그때로 말하면 위대한 장군님께서 70일전투를 몸소 맡기시고 대담하고 통이 큰 작전과 비범한 조직적수완, 세련된 령도로 전투를 지휘하시느라 매우 바쁘신 때였다. 하지만 사람들의 정신력발동에서 학습을 중요한 문제로 보시였기에 우리 장군님께서는 학습경연대회에 더 큰 의의를 부여하시며 구체적인 지도를 주시였다.

전국의 모든 공장, 기업소, 기관, 협동농장들에서 일제히 시작되여 군별, 도별로 진행된데 이어 중앙경연대회를 조직하는 방법으로 진행된 학습경연과정은 문답식학습방법이야말로 광범한 대중의 학습열의를 높이고 학습을 대중자신의 사업으로 전환시켜 보다 큰 성과를 거둘수 있게 하는 가장 우월한 학습방법이라는것을 다시금 똑똑히 보여주었다.

제1차 전국학습경연대회는 위대한 수령님과 장군님에 대한 전체 참가자들의 끝없는 충정심과 김일성주의학습을 강화하여 주체의 혁명위업을 대를 이어 완수하려는 불타는 결의가 차고넘친 학습경연으로 되였다.

전당과 온 사회에 오직 수령의 혁명사상만이 차넘치게 하고 수령의 구상과 의도대로 혁명과 건설을 전진시키기 위하여 사상전의 불길, 혁명적학습열풍을 일으키도록 하신 위대한 장군님의 령도의 나날속에는 잊지 못할 사실들이 수없이 새겨져 있다.

언제인가 위대한 장군님께서 평범한 운전사의 학습계획서를 보아주신적이 있었다. 그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수령님의 교시를 학습해야 앞을 내다볼수 있고 앞을 내다보아야 총정의 한길을 변함없이 걸을수 있다고 하시였다. 그러시고는 그에게 모를것이 있으면 아무때나 찾아오라고, 아는것 가르쳐주시겠다고 다정히 이르시였다. 그후에는 《김일성선집》을 비롯한 어버이수령님의 고전적로작들과 혁명전통학습자료들, 기술서적들을 몸소 가지고오시여 그의 학습에서 제기되는 문제들도 풀어주시였다.

그뿐이 아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친히 당중앙위원회의 일군들을 농장에 파견하시여 논밭머리에서 진행하는 문답식학습방법의 모범을 창조해주신 사실도, 정세가 긴장할수록 수령님의 혁명사상과 당의 로선을 정확히 알아야 한다고 하시며 한 방송일군에게 자신께서 보시던 어버이수령님의 로작들을 안겨주신 이야기도 우리 당력사의 갈피에 소중히 새겨져있다.

고난의 행군, 강행군시기 우리 조국앞에 조성된 난관은 얼마나 엄혹하였던가. 그처럼 시련에 찼던 시기에 끊임없는 현지지도의 길을 이어가시는 속에서도 우리 장군님께서 깊이 관심하신 문제는 학습이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찾으시였던 인민군부대들에 가면 교양실부터 찾으시고 군인들의 학습정형을 구체적으로 알아보시며 군인들의 학습에 필요한 도서들과 록화물도 수많이 보내주신 사실을 들을수 있고 그이의 발자취가 새겨진 기업소들에 가면 로동자합숙에는 어떤 책들이 있으며 새로 나온 책은 제때에 보급되는가 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료해하신 이야기들을 들을수 있다.

우리 장군님의 한생은 진정 혁명과 건설에서 사람의 사상이 기본이며 사람들의 사상의식이 모든것을 결정한다는 사상론을 구현하시여 온 나라에 혁명적인 학습기풍이 차넘치게 하시고 사상의 위력으로 혁명과 건설을 전진시켜오신 나날이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새 세기의 첫해에 진행된 중앙문화예술부문 창작가, 예술인들의 시범문답식학습경연을 참관하시고 우리 당사상사업에서 틀어쥐고나가야 할 과업을 밝혀주신것은 강성국가건설에 떨쳐나선 우리 군대와 인민을 힘있게 추동한 력사적인 계기로 되였다.

《전당이 학습하자!》

《생산도 학습도 생활도 항일유격대식으로!》

비록 수십년전에 나왔지만 강성국가건설위업을 전진시켜나가는 력사의 진군길마다에서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우리 당이 내놓은 이 구호를 심장에 쪼아박고 투쟁하고 또 투쟁하여왔다.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를 향한 오늘의 70일전투에서도 우리는 혁명적학습열풍을 세차게 일으켜 당의 로선과 정책으로 철저히 무장하고 만리마시대의 새로운 시대정신을 창조해나가고있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조선로동당 중앙군사위원회 공동청호와 전체 당원들에게 보낸 당중앙위원회 편지를 높이 받들고 총정의 70일전투에서 전례없는 기적과 혁신을 이룩해가고있는 단위들은 예외없이 혁명적학습열풍이 나래치는 단위들이다.

위대한 수령님들과 경애하는 원수님의 불후의 고전적로작들과 우리 당의 영광찬란한 혁명력사를 체계적으로, 전면적으로 깊이 연구체득할 때 강성국가건설의 최후승리에 대한 확신이 백배해진다.

당대회에 드릴 총정의 선물을 마련하는 전투의 최후돌격전에서 책임적인 순간이 앞에 있을 때면 당보를 펼쳐드시라. 그러면 밀림속의 병기창에서 맨손으로 연길폭탄을 만들어 자력자강의 본보기를 창조한 투사들, 속도전의 불바람으로 사회주의건설에서 끊임없는 비약과 기적을 이룩해나가던 전세대 일군들과 로동계급이 백절불굴의 투지와 힘을 북돋아줄것이다. 화를 복으로, 불가능도 가능으로 전환시키며 당에서 준 과업을 무조건 해내고야만 일군들, 굶어쓰러지면서도 기계설비만은 손에서 놓지 않은 정신력의 강자들, 만선의 메고동소리 높이 울리며 황금해의 새 력사를 창조한 인민군대 수산부문의 어로전사들, 사회주의두라격전방에서 풍요한 가을을 가꾸어가는 농업근로자들을 비롯하여 수많은 당정책결사관철의 투사들, 시대의 영웅들이 우리를 고무할것이다.

위대한 김일성-김정일주의용사인 불후의 고전적로작들과 당문헌들을 환히 꿰뚫도록 하기 위한 학습열풍이 순간도 멈춤없이 휘몰아치게 하려는것이 오늘 우리 당의 의도이다.

혁명의 년대와 년대, 세기와 세기를 이어오면서 그 정당성과 생활력이 뚜렷이 확증된 혁명적학습열풍의 위력으로 70일전투를 눈부신 자랑과 성과로 결속하고 영광의 당대회를 맺맺이 맞이하자.

온 사회에 항일유격대식학습기풍, 혁명적학습열풍이 차넘치고 천만군민이 위대한 김일성-김정일주의와 그 구현인 당의 로선과 정책으로 철저히 무장할 때 우리 당사상사업에서는 더 큰 전진이 이룩되고 강성국가건설의 최후승리는 더욱 앞당겨지게 될것이다.

본사기자 백 영 미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

또고공화국 대통령에게 축전을 보내였다

로 메

또고공화국 대통령

포르 에쏘짐나 그나씽그베각하

나는 또고독립 56돐에 즈음하여 당신과 당신을 통하여 귀국정부와 인민에게 열렬한 축하를 보냅니다.

나는 이 기회에 나라의 사회경제적발전을 이룩하기 위한 당신과 귀국인민의 사업에서 보다 큰 성과가 있기를 충심으로 축원하면서 우리 두 나라사이의 전통적인 친선협조관계가 변함없이 강화발전되리라는 확신을 표명합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
김 영 남

주체105(2016)년 4월 27일 평 양

회고록학습을 실속있게

덕성탄광 초급당위원회에서

덕성탄광 초급당위원회에서 위대한 수령님의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에 대한 학습을 실속있게 진행하여 수령님의 불멸의 혁명생애와 업적을 당원들과 탄부들속에 깊이 체득시키고있다.

초급당위원회에서는 구체적인 계획밑에 당세포와 근로단체조직들에서 회고록학습을 잘해나가도록 조직정치사업을 짜고들어 진행하고있다.

또한 일군들부터가 회고록을 깊이 연구학습하고 갱들에 내려가 혁신선전사업을 참신하게 벌리도록 하고있다.

얼마전 초급당위원회의 지도밑에 진행된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 제2권에 수록된 《새 무장력의 탄생》에 대한 연구발표모임은 큰 실효를 거두었다.

여러가지 형식과 방법으로 실속있게 진행되는 회고록학습을 통하여 어버이수령님의 한생이 어려있는 조국땅우에 기어이 사회주의강성국가를 일떠세울 불타는 맹세를 다진 탄광안의 당원들과 탄부들은 경애하는 원수님의 선군혁명령도를 높이 받들어 총정의 70일전투를 성과적으로 결속하기 위한 석탄생산에서 일대 혁신을 일으켜나가고있다.

로농통신원 연 전 행

경애하는 원수님의 믿음과 기대에 높은 증산성과로 보답할 열의에 넘쳐있다. —2.8직동청년탄광에서— 본사기자 신 충 혁 찍음

당의 령도체계확립은 혁명의 최후승리를 위한 결정적담보

온 나라 천만군민이 당 제7차대회를 승리자의 대회로 빛내이기 위한 최후돌격전을 힘있게 벌려나가고있는 격동적인 시기에 우리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불후의 고전적로작 《당의 령도체계를 철저히 세울데 대하여》를 발표하신 37돐을 맞이하고있다.

주체68(1979)년 4월 28일에 발표된 이 로작에는 당의 결정과 지시를 무조건 끝까지 관철하는 혁명적기풍을 세우며 당안에 강철같은 규률을 확립할데 대한 문제, 당원들이 당조직관념을 바로가지고 당생활을 잘하는 문제, 당조직들의 전투적기능과 역할을 높이며 일군들이 령도예술을 높일데 대한 문제를 비롯하여 당의 령도체계를 세우는데서 나서는 리론실천적문제들이 구체적으로 밝혀져있다. 로작의 사상리론들은 주체혁명위업의 최후승리를 이룩하기 위한 투쟁에서 항구적으로 틀어쥐고나가야 할 강령적지침이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당의 령도체계를 세우기 위한 사업은 혁명과 건설에 대한 당의 령도를 확고히 보장하기 위한 매우 중요한 사업이며 모든 당조직들과 당일군들이 언제나 튼튼히 틀어쥐고나가야 할 책임적인 사업입니다.》

당의 령도체계를 세우는것은 혁명적당건설의 근본원칙이며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을 성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관건적인 문제이다. 당의 령도체계를 철저히 세워야 당이 혁명의 참모부로서의 자기 사명을 다할수 있으며 광범한 대중을 조직동원하여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을 성과적으로 수행해나갈수 있다.

로작이 발표된 때로부터 오늘에 이르는 나날은 당의 령도체계를 철저히 확립하기 위한 투쟁이 힘있게 벌어지고 혁명과 건설에 대한 당의 령도가 확고히 보장되여온 긍지높은 나날이였다. 당의 령도체계를 철저히 확립하기 위한 투쟁속에서 당대렬의 사상적일색화와 조직적공고화가 보다 높은 단계에서 실현되고 전당과 온 사회에 당의 로선과 정책을 결사관철하는 혁명적기풍이 차넘치게 되였으며 우리 식 사회주의의 정치, 군사, 경제적위력이 비할바없이 강화되게 되였다. 수령의 유일적령도가 확고히 실현된 백전백승의 강철의 당, 바로 이것이 조선로동당의 위대한 모습이다.

오늘 우리 혁명은 주체혁명위업수행의 도약기에 들어섰다. 어버이수령님 따라 시작하고 위대한 장군님 따라 승리를 떨쳐온 주체혁명위업을 끝까지 완성해야 할 과업이 우리앞에 나서고있으며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것은 전당과 온 사회에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유일적령도체계를 철저히 세우는것이다. 여기에 일심단결의 강국, 불패의 군사강국인 우리 조국의 위력을 천백배로 강화하고 주체혁명의 최후승리를 이룩해나가는 길이 있다.

당의 결정과 지시를 끝까지 관철하는 혁명적기풍을 세우는것은 당의 유일적령도밑에 사회주의강성국가건설을 힘있게 다그쳐나가기 위한 근본담보이다.

당의 령도는 당의 결정과 지시를 관철하기 위한 투쟁을 통하여 실현되며 당의 령도체계를 세우는 중요한 목적도 당의 결정과 지시를 철저히 관철하자는데 있다. 당의 결정과 지시를 철저히 관철하는 과정이자 곧 당의 령도체계가 확립되는 과정이며 강성국가건설이 승리적으로 전진해나가는 과정이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로작에서 당의 결정과 지시는 모든 일군들과 당원들이 튼튼히 틀어쥐고나가야 할 지도적지침이라고 강조하시였다.

우리 당의 결정과 지시에는 인민의 꿈과 리상을 실현하고 조국의 부강번영을 위한 구체적인 방도들이 뚜렷이 밝혀져있다. 경제강국건설과 문명국건설을 다그쳐나가기 위한 과업으로부터 불패의 군력을 백방으로 강화하기 위한 방도에 이르기까지 우리 당의 정책은 언제나 과학적이며 정당한것이다.

모든 부문, 모든 단위에서 당의 결정지시를 무조건 집행하고 철저히 관철하여야 당의 결심이 현실로 꽃펴나게 되며 강성국가건설에서 빛나는 결실을 가져올수 있다.

당중앙과 심장의 박동과 전진의 보폭을 맞추고 당의 로선과 정책을 결사관철해나가는것은 우리 군대와 인민의 혁명적풍모이다. 황철의 로동계급이 우리 식의 주체철생산체계를 확립하여 통장훈을 부르고 자립의 강철기둥으로 우리 당을 억척같이 받들어나가고있는것은 위대한 수령님들의 유훈, 당중앙의 구상을 기이이 관철하려는 불타는 충정심을 지녔기때문이다. 죽어도 혁명신념 버리지 말라는 구호를 말로써가 아니라 심장의 붉은 피로 새기면서 새로운 영웅청년신화창조로 당에서 정해준 시간에 당이 요구하는 높이에서 백두산영웅청년3호발전소건설을 완공한 백두청춘들의 가슴마다에 맥박친것도 경애하는 원수님의 믿음이면 지구도 든다는 비상한 각오였다. 이 위대한 현실은 당의 결정과 지시를 가장 정당한것으로 받아들이고 철저히 관철해나갈 때 끊임없는 기적과 위훈을 창조하게 된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천만군민이 당정책결사관철의 투쟁기풍으로 살며 싸워나가기에 강성국가건설의 승리는 확정적이다.

당원들에 대한 당생활조직과 지도를 강화하는것은 모든 당원들을 사상과 신념의 강자로 키워 당정책관철에서 선봉대, 돌격대로서의 영예를 높이 떨쳐나가게 하기 위한 중요한 요구이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로작에서 일군들과 당원들이 당조직관념을 바로가지고 당생활을 잘하여야 당의 의도대로 사고하고 행동할수 있으며 당의 유일적령도밑에 한결같이 움직일수 있다고 가르치시였다.

당조직은 당원들이 정치적생명을 빛내여나가도록 보살펴주고 이끌어주는 정치적생명의 보호자이다. 급퍼가는 돌에도 이끼가 끼듯이 당조직들이 당원들의 당생활조직과 지도를 강화하지 않으면 머리에 공백이 생기고 나중에는 사상적으로 변질되게 된다. 당원들에 대한 당생활조직과 지도를 끊임없이 강화해나갈 때 모든 당원들이 수령절사옹위의 전위기수, 강한 조직성과 규률성을 지닌 쇠소리나는 혁명가, 전격의 돌파구를 열어나가는 선봉투사로서의 사명과 본분을 다해나갈수 있다.

오늘 총정의 70일전투의 격전장들마다에서는 당의 사상과 정책으로 튼튼히 무장한 우리 당원들이 대오의 맨앞장에서 힘차게 내달리고있다. 로동당원들은 앞으로라고 웨치며 전례없는 생산실적, 기적창조의 로력적위훈, 최첨단돌파의 과학기술성과로 당정책을 제일 앞장에서 관철해나가는 용사들도 우리 당원들이고 외진 섬초소와 수천척지하막장을 비롯한 당이 맡겨준 초소에서 재끗한 량심을 바쳐가는 애국자들도 다름아닌 우리 당원들이다. 부서져도 흰빛을 잃지 않는 백옥처럼 일편단심 조선로동당만을 믿고 따르는 우리 당원들의 혁명적인 투쟁기풍은 오늘의 70일전투에서 새로운 만리마속도를 창조해나가는 근본원천으로 되고있다. 피끓는 심장을 당중앙위원회 뜨락에 이어놓고 령도자와 사상도 숨결도 발걸음도 같이해나가는 수백만 당원들이 있기에 우리 당이 강하고 사회주의강성국가건설구상이 빛나는 현실로 꽃펴나고있는것이다.

일군들이 우리 당의 령도예술을 철저히 구현하는것은 당과 혁명대오의 일심단결을 더욱 강화하고 그 위력을 높이 떨쳐나가기 위한 중요한 요구이다.

일군들은 당의 핵심력량이며 혁명의 지휘성원이다. 혁명과 건설에 대한 당의 령도를 확고히 보장하는가 못하는가 하는것은 중요하게 일군들에게 달려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로작에서 일군들이 옳은 령도예술을 가져야 광범한 군중을 조직동원하여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을 힘있게 밀고나갈수 있으며 당의 령도체계를 바로세울수 있다고 교시하시였다.

우리 당의 령도예술은 위대한 수령님들께서 오랜 기간 혁명과 건설을 령도하시면서 철저히 구현하여오신 가장 혁명적이고 인민적인 령도예술이다. 여기에는 한평생 인민들속에 계시면서 인민들과 고락을 함께 하신 백두산위인들의 숭고한 이민위천의 사상과 풍모가 깃들어있고 그 어떤 고난과 시련도 뚫고 혁명과 건설을 성과적으로 밀고나갈수 있는 방법론이 다 밝혀져있으며 대중지도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들이 집대성되여있다. 일군들이 우리 당의 혁명적령도예술을 적극 구현해나가는데 광범한 대중을 당의 두리에 더욱 철통같이 묶어세우고 그들을 불러일으켜 모든 사업에서 혁명적전환을 일으켜나가는 근본열쇠가 있다.

오늘 우리 일군들속에서는 당의 숭고한 인민관과 대중령도방법을 철저히 구현하기 위한 사업이 활발히 벌어지고있다. 인민생활에서 걸린 문제들을 푸는데 팔을 걷고 달라붙어 인민들이 좋아하는 일들을 하나하나 모가 나게 해제끼는 일군들도 있고 평양의 불빛, 인민의 행복의 불빛을 지키기 위해 자기 초소에서 한밤을 지새우는 일군들도 있다. 현대과학기술을 남먼저 습득하여 대중의 심장에 혁신의 불을 달아주고 대중의 집체적지혜와 무궁무진한 힘에 의거하여 모든 일을 전개해나가며 전투조직과 지휘를 화선식으로 박력있게 해나가는 일군들에 의하여 어디서나 비약의 열풍이 휘몰아치고있다. 현실은 일군들이 위대한 수령님식, 장군님식대로,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가르쳐주신대로 일해나갈 때 당의 사상과 령도가 빛나게 실현되게 된다는것을 실증해주고있다.

모든 일군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혁명발전의 요구에 맞게 경애하는 원수님의 유일적령도체계를 더욱 철저히 세워나감으로써 위대한 수령님들의 유훈대로 하루빨리 이 땅우에 천하제일강국을 일떠세워야 할것이다.

윤 철 희

학습은 첫째가는 혁명임무

총정의 70일전투장은 나래치는 혁신의 기상과 함께 학습열풍으로 하여 이채롭다.

우리 당의 굴함없는 공격적인 혁명사상으로 무장하기 위한 학습은 경제과업수행에서도 최대의 속도와 질을 낳는 원동력으로 되고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학습은 혁명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첫째가는 임무입니다.》

력사적인 당 제5차대회를 앞둔 어느날이였다.

해당 부문 일군들을 몸가까이 부르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오늘은 동무들이 그동안 학습을 얼마나 하였는가를 알아보려고 찾았다고 하시였다.

순간 일군들은 긴장해졌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자기들의 학습정형을 료해하기 위하여 부르시였으리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일군들이였다.

한동안 그들의 학습정형에 대하여 알아보시던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맨뒤쪽에 앉아있는 한 일군을 부르시였다.

자리에서 일어서는 일군을 바라보시며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무엇을 물어달라고 제기할 때에는 언제나 앞장서더니 오늘은 어떻게 된 일인가고 하시면서 가벼운 웃음을 지으시였다.

그러시고는 한 영화의 제목을 이야기하시면서 어떤 영화인지 말해보라고 이르시였다.

그 일군의 대답을 다 들어주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우리 일군들은 전공분야만이 아니라 모든 분야를 포괄하는 종합적인 지식을 가져야 한다고, 그러므로 정치서적은 말할것도 없고 우리 나라의 문학작품들과 세계문학작품들도 읽어 문학예술에 대한 지식을 넓혀나가야 한다고 세심히 가르쳐주시였다.

그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지금은 유망이 아무리 커도 실무와 지식이 안받침되지 않으면 사업에서 성과를 거둘수 없다고 하시면서 우리 일군들이 학습을 정상화하는것은 자신을 위해서도, 당을 위해서도, 혁명을 위해서도 가장 중요한 사업이며 첫째가는 혁명임무이라고 교시하시였다.

참으로 위대한 장군님의 그날의 가르치심은 우리 일군들이 어떤 자세와 립장에서 자신들의 실력을 높여나가야 하는가를 심장깊이 새겨준 고귀한 지침이였다.

높은 실력이자 당과 수령에 대한 충실성이고 실적의 높이이다.

대중의 심장을 혁명열, 투쟁열로 불타게 하자고 해도 그렇고 모든 사업을 혁명적으로, 과학적으로 전개해나가자고 해도 높은 실력을 지녀야 한다.

하기에 우리 당은 력사적인 당 제7차대회에 즈음하여 《전당이 항일유격대식학습열풍으로 들끓게 하자!》라는 전투적구호를 제시하였다.

만리마시대의 새로운 시대정신이 창조, 창출되여야 하는 오늘의 현실은 일군들만이 아닌 전체 인민이 당을 위하여, 혁명을 위하여 높은 실력을 지닐것을 요구하고있다.

학습을 첫째가는 혁명임무로 어기고 학습열풍을 세차게 일으켜 모두가 사상의 강자, 다방면적인 실력가로 준비할 때 백두산대국의 미래는 더욱 휘황찬란할것이다.

강 원 남

북변의 주타격전방에 기어이 대승전고 높이 울리리

함경북도의 농업부문 일군들과 근로자들의 투쟁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우리 당은 인민생활문제를 천만가지 국사가운데서 제일국사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승리의 돌파구가 열렸다.

지난해보다 높이 세운 각종 유기질비료생산과 농기계부속품생산목표 넘쳐 수행, 물확보 2.1배, 관개시설공사 및 보수와 양수설비수리정비 열흘이상 앞당겨 결속,

한치도 물러설수 없는 제1선참호

올해 도앞에 나선 알곡생산목표는 대단히 높고 방대하다.

최고수확년도였던 지난해에 비해 7,000여t의 알곡을 더 생산!

현실적조건만을 따져본다면 불가능이라는 답밖에 찾을수 없는 실로 헐치 않은 수자이다.

당이 제시한 알곡생산목표앞에서 언제한번 흥정을 모르고 절사관철하며 련이어 최고수확년도수준을 돌파해온 도의 농업부문 일군들과 근로자들은 배가의 힘으로 두주먹을 부르쥐고 70일전투에 용약 떨쳐나섰다.

지난 3월초 어느날 수천t의 비료가 청진항에 도착했다.

온 도가 끓었다. 70일전투에 진입한 인민경제 주요부문 그 어디서나 막대한 투자를 요구하고 시급히 해결해야 할 문제도 미처 꼽지 못할 정도인 바로 그때에 보내온 한t한의 비료.

정녕 한약이였다. 싸우는 고지에 한약을 보내는 심정으로 당과 인민이 크나큰 기대를 담아 마련하여 보내온 더없이 귀중한 전선원호물자였다. 더우기 서해벌방들보다 먼저 와닿은 비료를 억만금보다 더 무겁게 받아안으며 도의 일군들과 농업근로자들이 다시금 심장깊이 새겨안은것은 무엇이였던가.

사회주의수호전의 제1제대 제1선참호에는 벌방과 산골, 좋고나쁜 땅이 따로 있을수 없다는 드높은 자각이였다. 죽어도 살아도 내 나라, 내 민족을 위해 만난을 헤치며 싸운 항일혁명선렬들의 고귀한 넋, 붉은 피가 진하게 슴배인 력사의 이 땅, 나의 조전을 한목숨 바쳐서라도 끝까지 지켜갈 불타는 충정의 맹세였다.

협동벌 어디서나 뜨거운 숨결이 세차게 고동쳤다.

일군들의 일본새가 달라졌다. 도당책임일군이 라남구역 룡암협동농장에 나가 농장원들과 함께 거름을 져나르며 그들의 정신력을 불러일으켰고 명간군 광암협동농장에 나간 도농촌경리위원회 책임일군은 많은 소농기구들을 넘겨주고 열무바닥과기작업도 진행하면서 이 땅을 어떻게 사랑하며 가꾸어야 하는가를 말없이 가르쳐주었다. 성의껏 마련한 후방물자들을 안고 가족들과 함께부리기를 적기에 질적으로 진행…

함경북도의 농업부문 일군들과 근로자들이 올해 당이 제시한 높은 알곡생산목표를 성과적으로 점령할수 있는 만단의 준비를 갖추어놓았다.

총정의 70일전투를 성과적으로 결속하기 위한 천만군민의 최후공격전의 발걸음소리가 강산을 진감하는 속에 동해지구 북변땅의 주타격전방에서 자랑스럽게 울려퍼진 대승전고의 서곡은 과연 무엇을 전해주는것인가.

온 군이 탈바꿈이 어퍼해져 간난신고하며 쌓아올린 언제가 지난해 큰물피해로 하여 뭉청 떨어져나가고 완공을 눈앞에 바라보던 공사속도는 다시 처지게 되였다.

군일군들은 정신을 번쩍 차리였다. 어떻게 하나 저수지공사를 70일전투기간에 기본적으로 완공하여 포전마다 생명수가 흘러들게 하자.

도와 군의 책임일군들이 스스로 절린 문제들을 한가지씩 맡아안고 밤이 닳도록 뛰여다닐 때 돌격대원들은 함마와 정대로 바위를 뜯어내고 언땅을 한치한치 까나갔다.

《어서 들어가십시오. 그러다가 상처가 또 도지면…》

《날더러 락오자가 되라는건 아니겠지. 내 걱정말고 어서 팡팡 내리치게.》

며칠전 작업도중 뜻하지 않게 한다리를 상하고도 공사가 완공되기 전까지는 전투장을 뜰수 없다며 매일같이 현장에 나와 정대도 잡아주고 노래도 불러주는 돌격대원이였다. 막돌채취장에서 이런 싱갱이가 벌어질 때 토량운반작업조에서는 쓰러지면 다시 일어나 달리고 또 달리는 처녀돌격대원 정순옥동무를 만류하다못해 눈물을 머금고 돌아서는 돌격대원들의 모습도 보였다.

하루땔리 이 저수지물로 내 고향의 포전들을 푹푹 적셔주고싶은 열망으로 군일군들과 돌격대원들은 종전에 비해 매일 2.5배이상의 공사속도로 완공의 날을 앞당겨갔으며 한쪽으로는 150정미이상의 물을 잡아 씨루리기전투로 들끓는 포전들에 보내주었다.

그 시각 어랑군에서는 무제협동농장의 70여정보의 논판수에 필요한 질좋은 전기를 보장하기 위한 통이 큰 작전이 펼쳐지고있었다.

먼곳에서 양수동력을 보장받는 사정으로 하여 이곳 농장원들은 해마다 응당한 수확고를 내지 못하고 늘 자책속에 안타까와하고있었다.

70일전투가 군일군들의 눈을 번쩍 띄워주었다. 결코 쉽게 결심할 일이 아니였다. 변압기와 기름문제는 둘째치고라도 보조설비들을 일식으로 갖추는데만도 많은 품이 들었다.

하지만 우리 당의 굴함없는 공격적인 혁명사상을 뼈속에 새긴 김철호, 로일현동무를 비롯한 군책임일군들의 드팀없는 의지는 군송배전소 소장인 남신길동무와 종업원들의 지혜와 열정을 백배해주었다.

그들은 기존공식과 전례를 깨뜨리고 전문공장에서만 생산할수 있다던 각종 설비들을 자체의 힘과 지혜로 제작해나갔다. 드디여 20여일만에 새 변대가 일떠서 논밭에 있던 40여개의 전주대들을 없애고 1,000여m의 전기선을 절약하면서도 질좋은 전기로 무제호의 맑은 물을 마음껏 퍼올릴수 있게 된 현실앞에서 그들모두는 자강력이 기적을 낳는다는것을 다시금 깨달았다.

학동지구 어려개 농장의 물문제해결을 위한 물길공사에 연유, 자재 등을 우선적으로 보장해준 김책시의 책임일군들, 단 한주일동안에 관개공사를 성과적으로 끝냄으로써 근 2,000정보의 논에 물을 댈수 있게 한 경원군사람들, 남대천하류에 양수장을 새로 건설하고 군안의 모든 물길들에 대한 가시기 및 확장전투를 파감히 벌린 화대군의 농업근로자들과 때일 거름실어내기계획을 넘쳐 수행하기 전에는 포전을 뜨지 않은 온성, 명간군의 농업근로자들…

진정 사회주의수호전의 제1제대 제1선참호를 지켜선 드높은 자각과 열정을 안고 한치한치의 땅을 피와 땀으로 가꿔가는 북변의 전초병들의 투쟁과 헌신을 어찌 한두마디로 다 전할수 있으랴.

지난 3월 중순 어느날 아침이였다. 무제호양수장의 설비수리를 맡은 어랑군판개판리소의 로동자들은 뜻밖의 정황에 맞다들렸다. 한 동무가 양수설비들과 함께 물속에 잠겨들었던것이다. 이때 서슴없이 차디찬 호수에 뛰여든 박경수동무는 동지를 구원하고 권양기를 비롯한 양수설비와 부속품들을 얼음장우로 떠밀어보내고는 영영 다시 솟구치지 못했다.

그가 목숨바쳐 지켜낸 설비들로 수리한 양수기가 기운차게 돌고있던 어느날, 때어나 백날을 맞이한 박경수동무의 아들애의 작은 두손에 사연깊은 부속품을 쥐여주며 군일군들과 판개판리소 종업원들은 맹세했다.

《동지들! 이 총을 받아주!》, 그날의 투사의 웨침이 오늘도 그대로 울리는 이 땅, 나의 고지를 피로써 사수한 전화의 용사들의 넋이 뜨겁게 고동치는 전야에 피와 땀, 생명도 아낌없이 바치리라.

불전한 몸상태를 애써 감춰가며 자기 임무를 책임적으로 수행한 도농촌경리위원회 처장이였던 고명학동무, 논갈이도중 보람을 잡은채 쓰러져 자기 몫까지 합쳐 더 많은 일을 해줄것과 당비를 조직에 바쳐달라는 부탁을 남기고 동지들의 곁을 떠나간 어랑군 룡진협동농장의 분조장이였던 림성철동무, 자기의 생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것을 알면서도 지팽이를 짚고 포전에 나와 못을 전채로 경쟁도표판앞에서 쓰러져 다시는 일어서지 못한 청암구역 청암협동농장 부원이였던 리달동무…

정녕 생명을 내대고 사수해야 할 사회주의수호전의 제1제대 제1선참호, 한치도 물러설수 없는 주타격전방이기에 전화의 영웅들처럼 모든것을 다 바친 북변의 전초병들.

오늘 우리 세대가 위대한 전승의 나날과 더불어 한치의 땅도 피로써 지킨 영웅전사들의 이름을 값높이 추억하듯이 먼 후날 우리의 후대들도 70일전투를 긍지높이 되새길 때마다 충정의 70일전투기록장의 갈피갈피에 새겨진 참된 전초병들의 아름다운 삶을 숭엄하게 돌이켜볼것이다.

자력자강으로 승리의 돌파구를

자기 힘, 자기 기술, 자기 자원으로 만단의 영농준비를!

이것이 70일전투와 더불어 함경북도 농업부문 일군들과 근로자들의 가슴속에 억척스럽게 다져진 의지였다.

희령시애국복합미생물비료공장에서 70일전투기간에 아미노산미량원소복합비료를 종전보다 1.5배 더 많이 생산할 목표를 세운것은 조건이 좋아서가 아니였다.

제일 절린것은 석탄보장문제였다. 절정적인 대책이 필요했다.

《지금 있는 두기의 보이라를 하나만 리용하면서 생산을 진행하면 어떻습니까.》

허호남동무의 기발한 착상에 모두가 무릎을 치며 지지해나섰다. 이 비료생산공정들인 렬분해공정과 킬레트공정에 설치된 두기의 보이라에서 하루에 소비하는 석탄량만 해도 근 2t이나 되였다. 따라서 보이라를 하나만 리용할수 있게 설비를 개조한다면 그로부터 얻는 실리는 이만저만 큰것이 아니였다.

집체적지혜가 합쳐졌다. 보이라의 앞쪽에 먼저 렬분해공정을 배치하고 그 폐열을 킬레트공정에서 리용할수 있게 연기자리길을 잘 배치해주면 문제없을것 같았다. 렬분해공정은 100℃이상의 온도를 12시간 보장해주어야 하지만 킬레트공정은 그아래의 온도를 2시간만 보장하면 되였던것이다.

설아전투가 벌어졌다. 3일째 되는 날 새롭게 개조한 설비에서의 아미노산미량원소복합비료생산이 마침내 성공하였다. 종전보다 비료의 하루생산량은 2배이상 늘어나면서도 석탄소비량이 크게 줄어든 놀라운 성과앞에서 그들은 다시금 자각했다.

방도나 가능성은 두뇌에서 나오기 전에 심장에서 먼저 나온다. 신념이 확고할 때 지혜가 샘솟고 슬기와 용맹도 솟구쳐 앞길이 환히 보인다.

어느 시, 군에서나 자기 힘, 자기 기술, 자기 자원으로 알곡증산의 확고한 담보를 마련하기 위한 투쟁으로 들끓었다.

길주군에서 자기 지방의 특성에 맞게 여러가지 유기질비료를 만들어 리용하기 위한 힘찬 돌격전이 벌어졌다. 군에 있는 어느 한 원료를 첨가한 유기질복합비료를 화학비료와 섞어 리용함으로써 6~8%의 알곡을 증수한 경험에 토대하여 한t의 원료라도 더 많이 채취하기 위해 온 군이 떨쳐나섰다.

동시에 과학자들과 힘을 합쳐 군의 어느 한 공장에서 나오는 폐액을 효과있게 리용하기 위한 사업도 완강하게 내밀어 끝끝내 좋은 결실을 맺고야말았다. 폐액에 많이 들어있는 리그닌성분은 후민산추출효과가 높고 식물성장촉진작용을 하는것으로 하여 여기에 풍화탄과 규조토 등을 혼합하여 만든 알비료는 정보당 근 500kg의 알곡증수를 담보하게 하였던것이다.

어랑군에서 해년에 없이 많이 내린 눈속을 헤치며 한t한의 너탄을 캐어나갈 때 경성군에서는 린회토확보와 운반전투로 들끓고 화대군 읍협동농장에서는 고리형순환생산체계확립에 더 큰 힘을 넣었다. 풍화탄, 갈탄버럭 등 자기 지방의 자원들을 리용하여 한g한g 정성다해 만든 온성군의 고농도후민산비료며 명천군의 유기광물질알비료, 희령시의 아미노산미량원소복합비료…

70일전투가 시작되여 며칠 안되는 어느날 화대군농기계작업소로 년로보장을 받고있던 4명의 기능공들이 찾아왔다.

《우리가 도울 일은 없겠나? 아직은 자네들보다 나을걸세.》

온 작업소가 그들을 에워싸고 좋아했지만 제일 기뻐한 사람들은 농기계제작과 수리에 절실히 필요한 설비를 살림대 대한 파업을 받은 기계수리공들이였다.

몇해째 리용하지 못하고있던 설비를 갑자기 살려내자니 애로되는것이 한두가지가 아니였던것이다.

바로 그런 때 작업소에 찾아온 어제날의 기능공들과 함께 그들은 힘과 지혜를 합쳐 바침내 설비를 새 기계처럼 만들어놓고 종합토양갈이기계와 5련보습들을 제작해나갔다. 그리고 보링기를 비롯한 어퍼대의 설비들을 살려내어 지난 시기 상상도 못하던 수십대의 뜨락또르수리실적을 기록하였다.

이들은 여기에 만족하지 않았다. 도적인 본보기단위가 될 목표밑에 전설전투도 완강하게 내밀었다. 있는것보다 없는것, 모자라는것이 더 많았지만 순간도 망설이지 않았다.

어느날 자전거에 한마대의 세멘트를 싣고 작업소에 들어선 한 일군, 집구들수리를 위해 마련했던 세멘트를 가지고 나온 일군의 모습은 그대로 혁신의 불씨가 되였다. 종업원들의 전정이 어린 갖가지 전설용자재들이 쌓이기 시작하였다.

여기에 감동된 도와 군의 일군들도 두발 걷고 도와나섰다. 결과 짧은 기간에 근 1,000m의 자동차수리장이 건설되고 련이어 연유창고와 여러 건물들이 개건되였다.

어디서나 이런 자력자강의 창조물들이 자랑스럽게 태여났다.

명천군농기계작업소에서 자체로 만든 성형알판과 비닐물뿌리개, 비록 멋있고 현란하지는 못해도 농장원들 누구나 좋아하는 자력갱생의 산물들이 우리에게는 더없이 소중하다. 단 한주일동안에 고장났던 여러대의 뜨락또르들을 새것처럼 살려낸 송평구역 룡호협동농장과 자체의 수리동력기지를 그쯘하게 꾸려놓고 그 어떤 농기계와 전동기도 척척 수리해내고있는것은 물론 벼모판종합영양제까지 자체로 생산리용하고있는 김책시동흥협동농장 일군들과 농업근로자들…

70일전투기간에 타발병이 쭉 펼어졌다는 북변의 전초병들의 이 고백을 접고 웃음속에서만 들을수 없다.

실로 우리 당이 조직령도하고있는 70일전투는 북변의 전초병들을 시련과 난관앞에서도 추호의 동요없이 자기 힘만을 믿고 일떠서는 굳센 의지의 소유자, 체현자들로 더욱 튼튼히 키워 주타격전방에 멋멋이 내세워주었다.

서해벌방을 따라앞설 경쟁열풍

도안의 농촌들에서 70일전투에로 부른 당의 전투적호소를 받들고 정보당 수확량에서 서해벌방과 경쟁할 배심으로 총돌격, 총매진하고있다.

경흥군을 놓고보아도 이 지대는 토심이 얕고 기후적산온도가 낮아 농사조건이 매우 불리하다. 하지만 군에서는 벌방의 다수확군들을 따라앞설 목표밑에 그 과학적담보를 마련해나가고있다.

무엇이 최북단의 산골군사람들에게 이런 아심만만한 배짱과 신심을 안겨주었는가.

군일군들이 지난해 종학협동농장에서 발랭상모에 의한 논벼소식재배를 도입하여 일부 포전들에서 정보당 10t이상의 소출을 낸 농사경험을 통하여 심장깊이 자각한것이 있다.

한 농장원의 무식은 그 하나의 포전에 영향을 미치지만 만리마천군의 기마수인 일군이 무식하면 한개 농장, 한개 군의 농사가 망치게 된다. 과학농사를 모르는 사람은 오늘날 사회주의수호전의 제1제대 제1선참호에 서있을 자리가 없다. 조건에 빙자하면서 적당히 계획이나 맞추려는 일군들의 그릇된 관점부터 깨버리고 서해벌방을 따라앞서자.

김형갑동무를 비롯한 군당일군들의 적극적인 지도밑에 과학농사를 위한 70일전투목표가 빈틈없이 세워졌다. 당의 뜻대로 지대적특성에 맞으면서도 소출잠재력이 큰 우량품종을 받아들이기 위한 사업, 튼튼한 발랭상모와 영양단지모에 의한 논벼소식재배방법을 적극 도입하기 위한 사업, 경험교환운동을 활발히 벌려 혁신적인 영농방법들을 제때에 일반화하기 위한 사업 등 모든 사업들이 차분하게 정확히 집행되여나갔다.

논벼소식재배방법을 적극 받아들이기 위해 군에서 진행한 사업들을 놓고보아도 그야말로 전투적이였다.

먼저 일군들속에 논벼소식재배원리를 깊이 인식시키기 위한 된바람을 일으켰다. 우선 과학농법강습에 농장을 맡고 내려가는 모든 군급기관 일군들을 다 참가시켜 배우도록 하였다. 학습강사들로는 청진농업대학 박사인 강경철동무와 군협동농장경영위원회 기사장 한상혁동무를 내세워 리론과 실천을 다같이 터득시켜주도록 하였다. 강습귀끝에는 군당책임일군이 직접 여러가지 방법으로 시험을 받아내군 하였다. 과학농사를 배우지 않고서는 견디여배기지 못하게 만들었다.

며칠후에는 군에 새로 건설된 미래원에서 협동농장 분조장이상 일군들을 위한 과학농법강습이 5일간에 걸쳐 진지하게 진행되였다. 그들이 자기 단위에 내려가 과학기술학습열풍을 세차게 일으켰다. 누구나 모르고서는 70일전투의 락오자가 된다는 자각을 안고 과학기술보급실과 포전, 가정 그 어디서나 열심히 배우고 학습했다.

온 군에 학습열풍이 일었다. 이전에는 영농기술수첩을 료해할 때마다 딸의것을 내밀군 하던 신아산협동농장의 한 농장원이 지금은 딸보다 더 많은 기술자료들을 수첩에 깨알같이 박아 써넣고 보름이 일도록 펼쳐보군 한다는 이야기, 지덕이면 온 가정이 모여앉아 당면한 영농공정에서 제기되는 과학기술적문제를 놓고 경험을 나누는것이 이제는 습관처럼 굳어졌다는 송학협동농장의 어느 한 분조장의 자랑, 이 모든것도 과학농사열풍과 더불어 꽃펴난것이다.

활발히 벌어진 경험교환운동이 과학농사열풍을 더해주었다.

첨단기술로 개발한 농작물성장조절제에 의한 종자처리를 진행하여 그 전해에 비해 정당 10%이상의 장냉이와 콩을 증수한 룡야협동농장의 경험, 벼모판에 씨를 뿌린 후 먼저 얇고 투명한 박막을 한벌 덮고 물을 뿌려준 다음 활창대를 꽂고 박막을 씌워줌으로써 싹틔우기속도를 2일 앞당기고 싹틔우기률과 살초효과를 종전보다 20~30%로 더 높인 송학협동농장 제6작업반의 경험, 보판바람막이바자를 설치할 때 바람이 세게 부는 지대적특성을 고려하여 잡판목과 버짚나래를 2중으로 쳐주어 덕을 본 양덕협동농장 제1작업반의 경험 등 가치있고 실리있는 여러가지 방법들이 온 군에 즉시 일반화되였다.

과학농사를 하면 북부랭해지대에서도 얼마든지 다수확을 낼수 있다.

과학으로 새해의 첫문을 연 뜻깊은 올해 그 어느때보다 과학농사열풍을 더 세차게 일으켜가고있는 동해지구 북변땅의 어느 포전에서나 이런 웨침이 울려나오고있다.

온 도에 정당 씨뿌림량을 훨씬 줄이고 튼튼한 모에 의한 논벼소식재배방법, 감자긴싹모재배방법, 봄보리이식 및 영양단지모재배기술을 받아들이는 등 과학농사를 위한 따라앞서기, 따라배우기, 경험교환운동의 불길이 활활 타번지는 속에 어느 시, 군에서나 다수확의 담보가 튼튼히 마련되여가고있다.

김책시일군들의 잡도리만 보아도 정신이 번쩍 든다. 정서철, 김금옥동무를 비롯한 일군들은 올해의 기상기후조건이 1978년도와 류사하다는 통보를 받은 즉시 해당 기관들과의 긴밀한 련계밑에 여러해기상기후자료들과 최고수확년도수준을 돌파했던 2014년도의 기상기후자료 등을 구체적으로 종합분석한데 기초하여 우선 그에 맞는 품종을 선택하였다. 그리고 과학적인 타산에 따라 씨뿌리기일정계획을 한주일 앞당긴데 맞게 정확히 집행되도록 요구성을 높이고 매일 총화사업을 땀짜게 따라세웠다.

명간군에서 모를 뽑을 때 뿌리가 잘리는 현상을 극복하고 랭습을 차단하기 위해 벼모판차단재로 버겨대신 낡은 마대를 수집하여 리용한 사실, 희령시에서 당면한 영농공정을 적극 추진시키는 바쁜 속에서도 붉은눈알기생벌생산을 위한 사업에 특별히 큰 힘을 넣고있는 사실, 길주군 주남협동농장에서 지난해 농사경험에 기초하여 큰모재배면적을 90%이상 늘일 대담한 작전밑에 완강히 실천한 사실…

오늘의 70일전투는 자력자강의 대진군이며 그 승리의 비결은 과학기술중시에 있다는 자각안고 과학농사열풍을 더 세차게 일으켜가는 함경북도일군들과 농업근로자들이 안아올 성과를 우리는 확신한다.

※ ※

아직은 가을을 멀리에 둔 화창한 봄이다.

하지만 당과 조국과 인민의 크나큰 기대와 믿음을 안고 우리의 참된 전초병들이 지키고 가꾸어가는 동해지구 북변의 전야를 바라볼수록 풍요한 가을이 흐뭇하게 안겨온다. 대승전고의 메아리가 가슴벅차게 들려온다.

본사기자 장은영

국가과학원 철도과학분원창립 60돐 기념보고회 진행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축하문 전달

국가과학원 철도과학분원창립 60돐 기념보고회가 27일에 진행되였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비서 최태복동지와 원계부문, 철도과학분원 일군들, 과학자, 기술자, 종업원들이 보고회에 참가하였다.

보고회에서는 국가과학원 철도과학분원 과학자, 기술자들과 일군들에게 보내는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축하문을 최태복동지가 전달하였다.

축하문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주체45(1956)년 4월 28일 국가과학원 철도과학분원을 창립해주시고 첫 전기기관차를 개발하며 철도운수를 과학적토대우에 올려세우는데서 분원의 과학자, 기술자들이 핵심적역할을 하도록 현명하게 이끌어주신데 대하여 지적하고 다음과 같이 계속하였다.

철도과학분원사업에 깊은 관심을 돌리신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과학기술력량과 물질기술적토대를 튼튼히 꾸려주시였으며 과학자, 기술자들이 새형의 전기기관차개발과 철도과학기술발전에서 이룩한 혁신적인 성과들을 높이 평가해주시고 보다 큰 위훈과 기적을 창조해나가도록 고무격려해주시였다.

당중앙은 새 세기 철도현대화의 웅대한 구상을 펼치고 그 실현에서 나서는 과학기술적문제들을 국가과학원 철도과학분원이 맡아 풀도록 크나큰 믿음을 안겨주었으며 우리 식의 지하전동차개발과 철도과학기술의 미래를 개척하기 위한 투쟁에서 끊임없는 혁신을 이룩해나가도록 따뜻이 손잡아 이끌어주었다.

국가과학원 철도과학분원은 창립후 지난 60년동안 백두산절세위인들의 현명한 령도와 세심한 보살피심속에 실력있는 철도과학기술두뇌집단으로 자라나 나라의 철도운수발전사에 빛나는 연혁을 아로새겼다.

국가과학원 철도과학분원에서는 최근년간 부닥치는 난관과 애로를 불굴의 의지로 극복하면서 위대한 수령님들의 유훈을 빛나게 관철하였으며 금수산태양궁전을 주체의 최고성지로 훌륭히 꾸리고 철도의 물질기술적토대를 튼튼히 축성하는데 공헌하였다.

분원의 과학자, 기술자들은 당의 자강력제일주의를 심장으로 받들고 김종태전기기관차련합기업소 로동계급과 힘을 합쳐 지하전동차를 우리 식으로 훌륭히 개발완성하는 위훈을 세웠으며 부강조국건설에 이바지하는 과학기술과제들을 스스로 맡아 수행하는 모범을 보이였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는 축하문에서 국가과학원 철도과학분원의 과학자, 기술자들과 일군들이 당의 과학기술중시사상과 로선을 받들고 불타는 충정과 높은 실력으로 나라의 철도운수발전에 커다란 기여를 한데 대하여 높이 평가하였다.

보고회에서는 국가과학원 철도과학분원 원장 명을철의 보고에 이어 소장 리창환, 실장 최광일이 토론하였다.

보고자와 토론자들은 당중앙위원회 축하문을 받아안은 영광에 대하여 언급하고 축하문에 제시된 전투적과업을 철저히 관철해나갈 결의를 표명하였다.

그들은 과학자, 기술자들과 일군들이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를 우리 당과 인민의 영원한 수령으로, 주체의 태양으로 높이 받들어모시고 당중앙을 정치사상적으로, 목숨으로 옹호보위하며 당을 따라 영원히 혁명의 한길을 가는 참된 동지, 전우가 되여야 할것이라고 말하였다.

자력자강의 정신으로 최첨단돌파전을 힘있게 벌려 새형의 전기기관차의 생산과 철도의 증량화, 정보화실현에서 나서는 과학기술적문제들을 원만히 풀어나갈데 대하여 그들은 말하였다.

보고자와 토론자들은 모두가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두리에 더욱 굳게 뭉쳐 우리 당의 새 세기 철도현대화구상을 실현하기 위한 투쟁에서 맡겨진 사명과 임무를 훌륭히 수행해나갈데 대하여 강조하였다.

보고회에서는 결의문이 채택되였다.

【조선중앙통신】

당사상전선의 전초병—선군시대 모범선동원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교양하는데서 선동원들의 역할을 높이는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다사간석지건설분사업소 2직장 제1작업반 선동원 탁성철동무

평안북도간석지건설종합기업소 다사간석지건설분사업소 2직장 제1작업반 탁성철동무가 선동원사업을 갓 시작하였을 때였다.

다른 일이라면 몰라도 선동원

사업만은 자신없다고 솔직한 심정을 터놓는 탁성철동무에게 하는 초급당일군의 이야기는 절절하였다. 무슨 일에서나 불같은 헌신으로 앞장서는 그 뜨거운 마음이면 얼마든지 선동원사업을 잘할수 있다. …

당조직의 이런 믿음과 기대가 탁성철동무를 분발시켰다.

탁성철동무의 사업에서 특징적인것은 우선 무슨 일에서나 남먼저 어깨를 들이밀고 대오를 이끌어나가는 불같은 헌신성이다.

사업소가 대제도간석지 3호방조제 마감막이전투를 진행할 때였다. 기승을 부리는 바람과 파도때문에 안전하게 돌부림작업을 할수 없었다. 자칫하다가는 운수수단도 사람도 바다물속에 휘말려들 판이였다. 이때 마감막이구간의 제일 위험한 곳으로 기발을 들고 달려가는 사람이 있었다. 탁성철동무였다. 위험을 무릅쓰고 자동차들이 돌부림작업을 안전하게 진행할수 있도록 지휘하는 그의 뒤를 따라 작업반원들모두가 결사전에 나섰다. 전투는 순간도 지체되지 않았다. 그들은 대제도간석지 3호방조제 마감막이공사를 성과적으로 결속하고 어버이장군님께 크나큰 기쁨을 드릴수 있었다.

간석지건설자들은 용감한 바다의 정복자, 땀절불굴의 투사들이라고 하신 어버이장군님의 크나큰 믿음을 심장에 간직한 탁성철동무는 파산간석지 2계단전설공사에서 제일 어려운 굴진작업을 맡아나섰다. 교대당 세구멍 더 뚫기를 발기하고 작업반원들이 굴진계획을 매일 200%이상 넘쳐 수행하도록 이끌어줌으로써 30만산태발파의 성공에 크게 기여하였다.

탁성철동무는 또한 높은 실력과 뜨거운 인정미를 지니고 작업반원들을 당정책관철에로 힘있게 불러일으켰다.

사시장철 찌는듯 한 피약벌과 뼈속까지 스며드는 강추위속에서 눈비와 바다바람, 파도와 싸우는 사람들이 바로 간석지건설자들이다. 이런 악조건에서도 탁성철동무는 10여년간 밤을 새워가며 위대한 수령님들의 불후의 고전적로작들과 당정책을 빠짐없이 학습하였으며 간석지건설에 대한 해박한 지식을 소유하기 위해 피타게 노력하였다.

작업반에 앓는 동무들이 생기면 수십리길을 걸어 귀한 약재를 구해온 사람, 어쩌다 차례지는 휴식일에는 제 집보다 먼저 작업반원들의 집을 찾아다니며 집수리도 해준 사람이 바로 탁성철동무이다. 이런 불같은 헌신으로 대오를 이끄는 미더운 선동원이 있어 작업반은 수령의 유훈관철전, 당정책옹위전의 앞장에서 기발을 들고 달리는 선구자집단으로 자라날수 있었다.

본사기자 채인철

강령군 읍협동농장 독립분조 선동원 리혜란동무

얼마전 강령군에서는 군안의 선동원들의 모임이 있었다.

읍협동농장 독립분조 선동원 리혜란동무의 소박하면서도 진실한 경험토론은 처음부터 참가자들의 심금을 틀어잡았다.

20여년전 리혜란동무가 독립분조 선동원으로 배치되여와서 한달이 지난 어느날이였다. 거름실어내기작업의 휴식참에 그는 손풍금을 타면서 노래를 불렀다. 그런데 웬일인지 농장원들이 자기가 부르는 노래에 그닥 감흥을 느끼지 못하는것 같았다. 그날 밤 리혜란동무는 좀처럼 잠들수가 없었다. 곰곰히 생각을 더듬던 리혜란동무의 뇌리에는 문득 얼마전 농장문화회관에서 공연을 마치고 나올 때 초급당일군이 하던 말이 떠올랐다.

《정말 손풍금을 잘 타는구만. 노래도 잘 부르고. 그런데 그 노래가 대중의 심금을 울리자면 일에서도 누구보다 앞장서야 하지 않을가.》

생각해볼수록 얼굴이 화끈 달아올랐다. 높은 실적이 없이 부르는 자기의 노래가 어떻게 농장원들의 심금을 울릴수 있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였다.

사실이 그러하였다. 대학을 졸업하고 음악교원을 하던 그는 한몸을 짱그리 바쳐서라도 고향마을을 꽃피울 굳은 결심을 가지고 농장으로 진출하였었다. 그러나 원래 체소한 몸에 선동원사업까지 맡아하자니 힘에 부쳐 일자리를 푹푹 내지 못하였었다. 자책되는바가 컸다.

높은 실적을 안고 노래를 부르자.

이렇게 결심한 리혜란동무는 거름지게를 지고 포전으로 나갔다. 밤을 새워가며 그는 낮에 나른것보다 두배나 되는 거름을 포전에 냈다. 그 다음날에도, 또 그 다음날에도 그의 밤일과는 변함이 없었다.

이렇게 그는 남모르는 수고를 바쳐가며 해마다 300여t의 흙보산비료와 200여t의 풀거름을 생산하여 포전에 내갔다.

선동원의 헌신적인 투쟁모습에 감동된 농장원들은 그의 노래에 자신들의 마음까지 합쳐가며 힘과 용기를 내군 하였다. 분조농사에서는 날마다 혁신이 이룩되였다.

이신작칙하면서 부르는 선동원의 노래가 있어 분조는 농사에서도, 생산문화, 생활문화확립을 위한 사업에서도 앞장선 단위로 되였다.

이 나날 리혜란동무의 노래는 분조와 작업반, 농장의 자랑으로 되였다. 오늘은 온 나라가 아는 선군시대 모범선동원이 되였다.

퍼플새선동원으로 소문난 리혜란동무의 토론은 여기에서 끝났다. 그러나 20여년간 헌신의 길을 걸으며 그가 부른 노래에 대한 이야기는 모임참가자들에게 깊은 여운을 남겼다.

고향땅을 사랑하는 진정과 헌신이 안받침된 노래만이 대중의 심금을 울릴수 있다고.

본사기자 장철범

주체조선의 건설속도, 세상이 알지 못하는 만리마속도로 총돌격, 총매진

려명거리건설장에서

세계를 향해 돌진하는 조선의 기상을 여기서 보라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당의 명령지시라면 산악같이 떨쳐일어나 불길을 가리지 않고 기어이 해내고야마는것은 우리 군대와 인민의 자랑스러운 전통이며 투쟁기풍이다.》

20여일이 흘렀다.

위대한 당의 령도따라 자강력제일주의의 거세찬 불길로 원쑤들의 비렬한 도발책동을 단호히 차갈기며 최후의 승리를 향해 총돌격, 총매진해나아가는 선군조선의 불굴의 기상을 안고 또 하나의 선경거리, 려명거리가 혁명의 수도 평양에 일떠서고있다. 려명거리건설착공식이 진행된 때로부터 지난 20여일간은 당중앙의 구상과 결심은 곧 실천이라는 절대불변의 신념을 지니고 충정의 70일전투의 불길드높이 내달려온 거창한 창조의 나날이였다.

려명거리 건설자들은 건설에 진입한지 얼마 안되는 짧은 기간에 수십동에 달하는 종전의 낡은 건물들을 들어내고 수십만㎥의 버럭을 불이 번쩍 나게 처리하였으며 방대한 량의 기초굴착공사를 끝내고 억세게 다진 터전우에서 살림집기초콩크리트치기를 본격적으로 진행하고있다. 이제 얼마 안있어 이곳 건설장을 찾는 사람들은 미제와 그 추종세력들의 숨통을 겨누는 사상의 미싸일마냥 무섭게 솟구쳐오르는 초고층, 고층살림집골조들을 비롯한 많은 건물들의 자태를 보게 될것이다.

지난 3월 중순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맞받아나가는 백두의 공격정신으로 원쑤들의 반공화국제재압살책동을 단호히 징벌하시며 70일전투의 철야진군을 전투에서 지휘하시는 그처럼 분망하신 속에서도 현지에 나오시여 금수산태양궁전과 룡흥네거리사이에 일떠설 려명거리건설을 선로하시고 건설에서 나서는 강령적인 과업들을 제시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건설부지와 공사규모, 살림집건물배치와 층수에 이르기까지 공사와 관련한 귀중한 가르치심을 주시였으며 려명거리를 21세기 에네르기절약형거리, 록색형거리로 만들자는것이 당의 의도라고 하시면서 설계 및 시공단위들에서 살림집과 공공건물에 필요한 조명과 난방문제를 태양빛전지와 지열, 자연채광 등으로 해결하며 건물옥상들에 온실을 조성하여 건축물의 록색화를 실현하겠다는 목표를 제기하고 투쟁해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뿐만 아니라 강력한 건설력량을 무어주시고 공사에 필요한 설비, 자재를 최우선적으로 보장할데 대한 전당적, 전국가적, 전사회적인 조치를 취해주시였다.

우리 당의 원대한 뜻을 높이 받들고 려명거리건설지휘부에서는 공사에 참가한 인민군군인들과 건설자들이 세상이 알지 못하는 만리마의 속도로 그 이름도 빛나는 려명거리를 짧은 기간에 손색없이 건설할수 있는 승리의 시간표를 정하고 빈틈없는 작전과 지휘로 건설장을 불도가니마냥 세차게 끓어번지게 하였다.

려명거리건설에서 기어이 만리마시대의 새로운 시대대표정신을 창조해나갈 건설자들의 신념과 의지, 혁명적열의를 대변한 붉은 기발들이 창공높이 휘날리고 그들을 만리마속도창조에로 부르는 전투속보판들이 건설장의 곳곳에 즐비하게 세워졌다.

자력자강으로 부강조국을 건설해가는 선군조선의 불패의 국력을 힘있게 과시하고 주체사상, 선군사상의 철리로 원쑤들의 머리를 후려치며 더러운 몰풍아리에 치명적타격을 안기는 심정으로 착공의 첫삽을 박은 건설자들은 당이 펼친 웅대한 설계도를 최단기간에 현실로 꽃피울 불타는 의지를 안고 과감한 공격전에 진입하였다.

미래과학자거리건설에 참가하여 혁혁한 위훈을 세운 우리의 미더운 군인건설자들이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께서 주신 전투명령을 또다시 받아안고 이곳으로 달려나와 낮과 밤이 따로 없는 격전을 벌리고있다. 이들은 화약에 불을 달고 적진을 향해 뛰여드는 육탄용사의 자세로 전투장마다에서 백두의 혁명정신, 백두의 칼바람정신을 높이 발휘하고있다. 하여 전반적인 단위들에서 초고층, 고층살림집기초굴착공사를 단숨에 끝낸데 이어 기초콩크리트치기에 진입하였으며 련일 높은 실적을 올리고있다. 기초굴착공사가 본격적으로 진행되던 나날 수백대의 특전기재들이 현장과 멀리 떨어진 하차장까지 운반한 토량은 하루에 정굴 1만 수천㎥에 달하였다.

김일성종합대학 3호, 4호교사 건설을 맡은 건설자들이 맞다드는 난관들을 자력자강의 정신력으로 뚫고나가면서 새 기준, 새 기록을 창조하고있다. 일면, 주면, 월면전투계획이 대담하고 통이 크게 세워지고 한치의 드팀도 없이 철저히 집행되는 속에 김일성종합대학 3호교사골조는 하루가 다르게 높아져 자기의 자태를 우뚝이 드러내고있으며 방대한 기초굴착공사를 남먼저 끝낸 천연암반우에서 4호교사기초콩크리트치기도 마감단계에서 추진되고있다.

건설건재공업성, 록채운성, 혁명사적지건설지도국, 외교단사업총국을 비롯한 여러 시공단위들에서도 빠른 기간에 맡은 버럭처리와 주변정리를 끝내고 기계수단들을 총동원하여 기초콩크리트치기실적을 계속 높이고있다. 특히 52-114호동건설을 맡은 수도건설위원회아래 평양시건설관리국 서구콩공건물건설사업소 건설자들은 기초콩크리트치기공사를 끝내고 골조공사에 진입하는 놀라운 성과를 거두었다. 그들의 뒤를 따라 52-113호동건설을 맡은 남구주택건설사업소 건설자들도 맡은 과제수행에서 높은 실적을 올리고있다.

자기들의 전투실적을 금수산태양궁전에 계시는 위대한 수령님께 매일, 매 시각 보고드린다는 자각을 안고 충정의 한길로 줄달음쳐나가고있는 건설자들의 힘찬 발걸음에 의해 지금 려명거리건설장에서는 분초가 다르게 새로운 위훈이 창조되고있다.

56-109호동건설장에 만리마속도창조의 기상 나래친다.

결사관철의 24시간

조선인민군 박경욱소속부대 군인건설자들

19일 오전 8시 30분부터 20일 오전 8시 30분까지 량적으로 500여㎥에 달하는 관기초콩크리트치기작업 결속!

이것은 기존공식으로는 최소한 3~4일 걸려야 할 작업량을 단 24시간동안에 해제낀 조선인민군 박경욱소속부대 군인건설자들의 전투기록이다. 하다면 그속에는 어떤 위훈이 깃들어있는가.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인민군대는 시대의 기수, 돌격대가 되여 당이 부르는 강성국가건설의 주요전구들마다에서 돌파구를 열어제끼며 인민을 위한 좋은 일을 적극 찾아하여야 합니다.》

이곳 부대에서는 70일전투기간 맡은 살림집들의 골조를 2층까지 올려세울 높은 목표를 내세웠다. 19일부터 20일사이의 24시간동안에 관기초콩크리트치기작업을 결속하는것은 목표를 수행하는가 그렇지 못하는가를 좌우하는 관건적고리였다.

할수 있는가 없는가 하는 론의는 애당초 없었다. 모두의 마음속에는 무조건성의 정신만이 강철기둥처럼 자리잡고있었다. 부대지휘관들은 이 목표의 성과적수행을 위해 주간작업조와 야간작업조를 따로따로 갈라 과도식으로 련속공격을 들이대기로 하였었다. 하지만 지휘관들은 그 전투작전을 변경시키지 않을수 없었다. 전투가 시작되자 주간작업조성원들이 작업하는 현장에 야간작업조성원들이 나타났던것이다. 한두명도 아니고 야간작업조의 모든 성원들이 너도나도 뛰여드는 바람에 지휘관들은 그들을 제지시키느라 꿀머리를 앓았다. 그러나 무슨 말로 그들의 발걸음을 돌려세울수 있었으랴.

금수산태양궁전에 계시는 위대한 수령님들께서 우리들의 전투모습을 지켜보고계신다!

부대지휘관들과 군인건설자들은 이런 불타는 충정을 안고 한모습되여 떨쳐나섰다. 머리회수한 장령을 비롯한 지휘부성원들부터가 맞들이를 들고 삽을 쥐고 대오의 기발이 되여 내달렸고 그들의 뒤를 따라 모든 군관, 병사들이 산악같이 일떠섰다.

그들속에는 당장 군의소에서 치료를 받아야 할 몸으로 군의들의 눈을 피해가며 작업하는 병사들도 있었다.

방송원 김은심동무는 24시간의 격전속에서 전투원들의 심장에 불을 다는 화선선동을 벌리느라 목이 쉬였다. 하건만 그에게는 한가지 안타까운것이 있었다. 수시로 전투장에 뛰여들어 혁신자들의 이름을 수첩에 적으려고 했지만 누구도 자기 이름을 대주지 않았던것이다. 병사들은 저마다 자기들의 지휘관들부터 소개해달라고 했고 지휘관들은 또 그들대로 병사들을 소개해달라고 하면서 그의 부탁을 들어주지 않았다. 온몸을 땀으로 화락 적시며 맞들이를 들고 뛰는 속에서 방송원에게 자기 이름이 아니라 다른 혁신자의 이름을 대는 병사들도 있었다.

자기들이 쌓아가는 기초에 한점의 티라도 있을세라 때로 콩크리트타입면을 걸레로 닦아가며 불꽃튀는 전투를 벌려온 부대지휘관들과 군인건설자들!

드디여 이들이 24시간동안의 전투목표로 내세웠던 500여㎥의 콩크리트치기과제를 수행하였을 때 전투현장의 속보판에는 이런 글발이 나붙었다.

《불사조들의 24시간!》

우리는 그 24시간에서 이들이 또다시 달려갈 240시간, 2 400시간을 본다. 만리마속도창조의 불길높이 우리 군인건설자들이 안아올 려명거리준공의 그날을 그려본다.

천년책임, 만년보증의 일념안고 철야전투를 벌리고있다.
—조선인민군 전용멸소속부대에서—

앞질러 지름길을 개척하는 작전과 지휘

외교단사업총국 일군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혁명의 지휘성원들인 일군들이 오늘의 총공격전에서 기수, 전위투사가 되여야 합니다.》

려명거리건설장 어디나 그러하지만 특별히 사람들의 눈길을 끄는 곳이 외교단사업총국 전투현장이다.

이 단위는 지난 시기 고층건물을 지어본 경험이 없고 다른 단위들에 비해 건설로력도 철없적다. 하지만 방대한 량에 달하는 버럭을 단숨에 처리하고 건설장적으로 제일먼저 기초콩크리트치기에 들어섬으로써 많은 사람들의 감탄을 자아내고있다. 이곳 건설자들은 그 비결이 혁신적인 안목으로 승리의 돌파구를 앞장에서 열어제끼는 총국당, 행정책임일군들의 작전과 지휘에 있다고 이구동성으로 이야기하고있다.

총국일군들의 사업에서 주목되는것은 무엇보다도 맡은 살림집건설을 최대한 다그쳐 끝내기 위한 두개 전선을 동시에 전개한것이라고 볼수 있다. 첫번째 전선이 건설현장이라면 두번째 전선은 총국아래 여러 단위들이다. 이곳 건설자들이 일명 《제2전선》이라고 부르는 총국아래 여러 단위들에서는 기초굴착공사가 진행되기 전부터 방대한 량에 달하는 철근가공 및 조립, 휘틀제작이 선행되였다. 특히 1 200여개에 달하는 휘틀들의 겉면에는 아연도철판들이 씌워졌다. 이것은 콩크리트치기의 질적수준을 높이고 타입회수와 휘틀의 수명을 늘이는데서 실로 큰 역할을 놀고있다. 건설자들 모두가 《제2전선》전투원들의 수고에 대해 임버릇처럼 외우는것도 결코 우연치 않다. 이와 같은 립체전의 성과속에는 승리의 돌파구를 열기 위해 모든 사업을 앞질러가며 작전하는 총국일군들의 노력이 깃들어있다.

일군들이 이렇게 사전에 두개 전선을 전개한것도 좋다. 하지만 보다 중요한것은 현실에 몸을 잠그고 걸린 문제들을 제때에 알아보며 즉시 대책을 세우고있는것이다. 이곳 일군들은 건설과제수행정형과 관련한 문제들을 사무실의 전화기로나 문건상의 수자로 알아보지 않는다. 건설의 총국앞에 제기되는 문제들을 처리하는 속에서도 매일 현장에 나와 하루사업총화를 진행할뿐아니라 밤을 새워가며 전투를 지휘하고 화선식정치사업도 벌리고있다. 25일 콩크리트치기속도를 결정적으로 높이기 위하여 혼합물압송기와 혼합물분배기의 설치문제가 제기되였을 때 총국책임일군들은 현장에서 직접 그 수송과 관련한 대책을 빈틈없이 세웠다. 그에만 머무르지 않았다. 일군들은 그날 밤중으로 해당 설비들을 안전하게 설치하기 위한 전투를 앞장에서 지휘하였다. 혼합물압송기, 혼합물분배기와 같은 설비들의 설치로 하여 외교단사업총국에서는 건설의 기계화비중이 훨씬 높아지게 되였다. 전투현장에 좌지를 정하고 하나부터 열까지 모든 사업을 빈틈없이 작전해나가는 야전형지휘관들의 일본새에 의해 총국의 공사실적은 계속 오르고있다.

격전의 나날속에 꽃펴나는 이야기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보석이 땅속에 묻혀있어도 빛을 잃지 않는것처럼 애국의 마음은 그것이 비록 크지 않아도 귀중한것이며 언제나 아름다운것입니다.》

류다른 하루일과

려명거리건설장에서는 살림집건설만이 진행되고있는것이 아니다. 건설장구역의 곳곳에 뻗어있는 도로들을 따라 걷느라면 류다른 하루일과를 수행하는 성원들을 볼수 있다. 건설과정에 먼지가 않을세라 도로들을 정상적으로 관리하는 인민군군인들과 건설자들의 모습이다. 금수산태양궁전 가까이에 있는 건설장이여서 이들의 마음은 더더욱 위대한 수령님들에 대한 오늘과 래일이 다르고 분초가 다르게 새로운 위훈이 창조되고있는 려명거리건설장!

착공의 첫삽을 박은 때로부터 이곳에서는 날에날마다 아름다운 이야기들이 꽃펴나고있다. 그중의 일부를 여기에 전한다.

《우리 어머니》

려명거리건설의 시작과 더불어 대성구역에서는 류다른 봉사자들이 생겨났다. 군인건설자들의 작업복도 빨아주고 손질도 정성들여 해주는 대성구역안의 녀인들이다.

누가 시켜서 하는 일이 아니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의 명령관철을 위해 쌓아전투로 날과 날을 이어가는 군인건설자들은 자기 자식처럼 생각하며 그들과 한전호에 선 심정으로 원군의 길을 걷는 녀인들의 이름을 우리 어찌 여기에 다 적을수 있으랴. 친어머니의 따뜻한 정을 부어주며 소중한 마음을 바쳐가는 이들을 군인건설자들은 《우리 어머니》라고 정답이 부르고있다.

그리움에 넘쳐있다. 자기들의 건설장에 언제나 위대한 수령님들을 모시는 심정으로 이어가고있는 충정의 한길, 그 길에서 류다른 하루일과는 오늘도 계속되고있다.

글 및 사진 현지보도반

라오스직업련맹대표단

만경대 방문, 여러곳 참관

라오스인민혁명당 중앙위원회 위원인 판 노이마니 라오스직업련맹 중앙위원회 위원장을 단장으로 하는 라오스직업련맹대표단이 만경대를 방문하였다.

손님들은 먼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만경대일가분들의 혁명활동을 보여주는 사적자료들과 사적물들이 전시되여있는 만경대혁명사적관을 참관하였다.

유서깊은 만경대고향집을 찾은 그들은 일찌기 혁명의 길에 나서시여 조국의 부강번영과 인민의 행복, 인류자주위업실현을 위하여 한평생을 바치신 위대한 김일성동지의 성스러운 혁명력사에 대한 해설을 들으면서 사적물들을 주의깊게 돌아보았다.

그들은 만경대옛집방문을 기념하여 사진을 찍은 다음 만경봉의 혁명사적들을 참관하였다.

방문을 마치고 단장은 만경대고향집을 돌아보며 혁명을 위하여 모든것을 다 바치신 위대한 김일성동지의 불멸의 업적과 애국적인 만경대일가분들에 대하여 잘 알게 되였다. 김일성동지의 혁명생애는 조선인민뿐아니라 세계진보적인민들이 따라배워야 할 고귀한 귀감이라고 말하였다.

대표단은 또한 주체사상탑과 조국해방전쟁승리기념관, 평양육아원, 애육원 등을 참관하였다.

【조선중앙통신】

영예로운 승리자

그 부름앞에 떳떳하리

70일전투가 마감단계에 이를수록 박천탄광의 석탄생산실적이 계속 높이 뛰여오르고있다. 이미 4월초에 70일전투목표를 넘쳐 수행한 이곳 일군들과 탄부들은 승리에 자만을 모르고 더욱 큰 승리를 향해 내달리고있다.

탄광에서는 비상히 높아진 탄부대중의 혁명적열의에 맞게 당 제7차대회전으로 상반년계획을 1.5배로 넘쳐 수행할 대담한 목표를 내세우고 그 수행을 위한 전투조직과 지휘를 드세게 벌리고있다. 김태영, 김련섭동무들을 비롯한 탄광의 일군들은 갱막장에 깊이 들어가 탄부들과 함께 탄도 캐고 탄차도 밀면서 그들을 위훈창조에로 불러일으키고있다.

일군들의 이신작칙과 경쟁열을 북돋아주는 힘있는 정치사업은 수천척지하막장에 증산열기를 백배해주고있다.

70일전투목표를 남먼저 돌파한 소대장 정철수동무를 비롯한 채탄1소대의 탄부들이 혁신의 앞장에서 계속 기세좋게 내달리고있다. 이곳 탄부들은 하루계획을 두배로 넘쳐 수행하는 집단적혁신을 일으키며 날마다 새 기록을 창조해나가고있다.

엄봉철, 권승철동무들을 비롯한 채탄2, 3소대의 탄부들도 따라배우기, 따라앞서기운동을 힘있게 벌려 놓이 세운 일정계획을 1.3배로 넘쳐 수행하고있다.

소대장 서광춘동무와 굴진소대의 탄부들은 탄광의 석탄생산성과가 자기들의 굴진실적에 달려있다는 높은 책임감을 안고 불리한 막장조건에서도 일정계획을 1.5배로 넘쳐 수행하고있다.

생산성과가 확대될수록 탄부가족들의 지원열의가 더더욱 높아져 탄부들의 전투사기를 한층더 북돋아주고있다.

탄광일군들과 탄부들의 드높은 열의로 하여 석탄산은 하루가 다르게 높아지고있다.

현사기자

왕재산예술단 남포에서 공연

위대한 당의 령도따라 자력자강의 만리마속도로 70일전투의 최후돌격전을 힘차게 벌려나가고있는 우리 인민의 혁명열, 투쟁열을 더해주는 왕재산예술단 예술인들의 지방순회공연이 25일부터 항구문화도시 남포시에서 진행되였다.

대안중기계련합기업소 로동자들과 청산리의 농업근로자들을 비롯한 시안의 각계층 근로자들과 일군들이 공연을 관람하였다.

공연무대에는 개시음악 《가리라 백두산으로》, 녀성3중창 《황금나무 능금나무 산에 심었소》, 녀성4중창 《우정의 노래》, 민족무용 《자랑하세 우리 민족옷》, 민속무용 《아장춤》, 현대무용 《해권을 단숨에》, 타프춤 《청춘시절》을 비롯한 다채로운 종목들이 올랐다.

녀성중창 《우리의 김정은동지》, 녀성2중창 《인정의 세계》에서 출연자들은 위대한 수령님들께서 맡기고 가신 사랑하는 인민을 한품에 안으시고 인민들모두가 믿고 살 은평의 하늘, 마음의 기둥이 되여주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에 대한 천만군민의 다함없는 흠모의 정을 감명깊게 형상하였다.

대안, 강선과 청산벌 등 남포시의 이르는 곳마다에 불멸의 령도자욱을 새기시며 전변의 새력사를 펼치신 절세위인들의 혁명생애를 뜨거운 격정속에 돌이켜보게 하는 녀성독창과 방창 불후의 고전적명작 《어디에 계십니까 그리운 장군님》은 관람자들의 심금을 세차게 울려주었다.

녀성독창과 방창 《통격전이다》, 경음악 《더 높이 더 빨리》는 당이 안겨준 자강력제일주의 기치를 높이 들고 만리마를 탄 기세로 70일전투의 결승선을 향해 내달리고있는 남포시인민들에게 커다란 고무를 주었다.

우리의 전인민적대진군을 막아보려고 피를 물고 날뛰는 미제와 박근혜역적패당에게 준엄한 철추를 내릴 우리 군대와 인민의 원쑤격멸의 의지를 보여주는 무용 《명명만 네뢰시라》는 관람자들의 심장마다에 적대세력들의 반공화국책동을 짓부시고 기어이 강성국가건설위업의 최후승리를 이룩하고야말 혁명적신념과 의지를 더욱 굳게 새겨주었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두리에 철통같이 뭉쳐 선군혁명의 천만리길을 씩씩이 걸어갈 우리 인민의 충정의 일편단심을 격조높이 구가한 공연은 종장 《천리라도 만리라도》, 《영원히 한길을 가리라》로 끝났다.

【조선중앙통신】

독자의 편지

교육자부부의 긍지

사람들은 저와 저의 남편을 가리켜 교육자부부라고 부르고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편을 들게 된것은 명절날이면 우리 집에 찾아와 생활에서 애로되는것을 풀어주고 교육사업을 성심성의로 도와주는 한 일군에 대해 이야기하고싶어서입니다.

올해 설날 저녁 우리 집에 낯모를 사람이 많은 식료품을 들고 찾아와 자기는 학부형이라고 하는것이였습니다. 그러면서 교육사업이나 가정생활에서 제기되는것은 없는가, 무엇이 필요하고 요구되는가 등 친정아버지처럼 다심하게 묻는것이였습니다.

다심한 그 정에 끌리여 우리는 학교와 가정에서 있은 가지가지 사연들을 오래동안 이야기하였습니다.

저의 집을 나서는 그에게 우리가 고맙다는 인사를 하며 무슨 일을 하는분인가고 물었더니 그는 웃으며 나도 자식을 가진 부모인데 학부형처럼 생각하라고 말하는것이였습니다. 그로부터 얼마후 우리는 그가 군당위원회에 새로 온 책임일군이라는것을 알게 되였습니다. 그후 명절날이면 그의 발걸음은 어김없이 우리 집으로 이어졌고 태양절에는 흑태웅콤퓨터도 우리 부부에게 안겨주며 교육사업에서 성과를 거두라고 고무해주었습니다.

그때 저희들은 정법한 교육자들을 위해 마음쓰는 일군의 진정에 고마움의 눈물을 흘리며 조국의 미래를 가꾸는 교육자로서의 사명과 긍지를 더욱 깊이 간직하게 되였습니다.

진정 그것은 한 일군의 모습만이 아니였습니다. 교육자들을 내세워주고 그 삶을 빛내주는 고마운 어머니당의 모습이였고 조국을 받드는 길에서 후대들을 키우는 밑거름이 되기를 바라는 조국의 당부였습니다.

저희들은 이런 당부를 가슴에 새기고 조국의 미래를 가꾸는 보람찬 길에서 영원히 교육자부부로 삶을 빛내이겠다는것을 굳게 결의합니다.

재령군 읍 39인민반 황금숙

충정과 의리, 사랑과 정으로 아름다운 사회주의 우리 생활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 인민은 사회주의대가정에서 고상한 사상정신적풍모를 지니고 하나로 굳게 뭉쳐 친혈육처럼 서로 돕고 이끌면서 화목하게 살아가고있으며 사람들을 끝없이 감동시키는 숭고한 동지적사랑과 도덕의리의 미풍을 높이 발양하고있습니다.》

지난 3월 6일, 평양시 제1인민병원 일반외과로는 전신 60%에 3도화상을 입은 최중증환자가 실려들어왔다.

이름은 진영수, 나이는 59살. 그는 강동지구탄광련합기업소 흑령탄광에서 40여년동안 굴진공으로 일해온 혁신자였다.

환자의 상태는 너무도 위독하였다. 하기에 수십년동안 수많은 화상환자들을 치료해온 일반외과 의사 전훈동무도 환자의 상태앞에서 마음이 무거워지는것을 어쩔수 없었다.

전훈동무의 머리속에는 당에서 그토록 아끼고 내세워주는 탄부를 놓고 파적으로, 병원적으로, 보건성적으로 진행된 협의회들에서 일치하게 제기되였던 의견이 되새겨졌다.

《그의 소생을 위해서는 한시라도 빨리 조기피사조직절제술을 진행하는것이 급선무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쉬운 일이 아니였다. 화상이 심하여 피사조직을 절제해내기가 여간 힘들지 않았다. 자칫 잘못하면 환자가 또다시 쇼크상태에 빠질수 있었고 출혈량이 많아져 회복이 불가능할수도 있었다.

조기피사조직절제술은 화상치료에서 의사와 환자의 정신력이 다같이 최대로 발휘되여야 하는 극한점과도 같은 고비였다.

한두번도 아니고 며칠동안 계속되는 수술에서 온몸의 기운이 빠져버릴 때면 전훈동무의 뇌리에는 혁명의 군복을 입고 외과군의로 복무하던 시절이 떠올랐다.

자기의 피와 살을 바쳐 회복시킨 전우들이 부대로 떠나면서 굳게 잡아주던 이손, 그들이 자기의 모습을 되찾아준 보배손이라고 높이높이 흔들어주던 그 손에는 그 무엇에도 비기지 못할 전우의 생명이, 천근만근과도 같은 그 생명의 무게가 실리군 하였다.

바로 그래서 순간도 손맥을 놓은적 없는 그였다.

전훈동무는 복무의 나날을 돌이켜보면서 수술칼을 더욱 억세게 틀어쥐었다. 생명의 극한점에서의 전투는 이렇게 한주일간이나 계속되였다.

그러나 수술후의 치료과정은 더욱더 힘에 부친 전투였다. 어느 한순간도 환자곁을 떠날수 없는것이 화상치료를 전문하는 의사들이다. 호흡관리, 분비물세척, 영양관리 등 모든것이 의사의 손이 직접 가닿아야 할것들이였다. 특히 화상부위에 대한 처치를 할 때면 의사와 환자가 다같이 땀범벅이 되군 하였다.

몸에 약물이 닿을 때마다 진영수동무는 아픔을 참느라 땀투성이가 되였고 전훈동무는 그의 아픔을 조금이라도 덜어주느라 온몸을 땀으로 적시군 하였다.

진영수동무가 찌르는듯 한 아픔을 참느라고 입을 앙다물고있을 때면 전훈동무는 《동갑이, 아프나? 조금만 하면 되네.》라고 살뜰히 이야기해주면서 그의 입에 사탕을 넣어주군 했다.

이제는 년로보장을 눈앞에 바라보는 진영수동무이건만 자기를 어린애처럼 애지중지하며 뜨거운 정성을 기울이는 동갑나이의사가 마치도 친어머니처럼 안겨와 주름진 눈가에도 눈물이 고이군 하였다.

어머니의 사랑과도 같은 다심한 정은 모두가 단잠에 든 깊은 밤에도 진함이 없었다.

잠든 환자의 곁을 떠나지 않고 수술부위들을 들여다보는 정겨운 눈빛, 매일과 같이 밤을 새워가며 환자에게 적합한 수술방법을 모색하느라 콤퓨터앞에서 새날을 맞이하군 하였던 전훈동무.

그만이 아니였다. 김광복, 주정향, 장혜옥동무들도 탄부를 위해 철야치료전투를 벌리였고 매일 아침이면 그의 머리맡에 회복에 좋은 영양식품들을 놓아주었다.

어느새 일반외과의 모든 의사, 간호원들이 출근시간이면 의례히 탄부에게 첫 문안인사를 하는것이 상례로 되였다.

전훈동무가 연구한 새로운 피부이식수술방법의 성과도 컸지만 한 생명을 위해 아낌없는 지성을 바쳐가는 일반외과 의료집단의 정성은 환자의 건강회복에서 눈에 뜨이는 성과를 가져왔다.

이제 남은것은 지금까지 진행한 피부이식수술들과는 달리 얼굴부위와 기능부위들에 피부를 이식해야 하는 마지막 수술이였다.

생각같아서는 자기의 피부를 다 떼여내서라도 환자에게 이식해주고싶었지만 그럴수도 없었다.

전훈동무가 착잡한 생각을 타잡지 못하고있을 때 고영준, 리찬선, 리지성동무를 비롯한 병원의 일군들이 찾아왔다.

《전훈선생, 마지막수술을 해야지.》 하며 원장 고영준동무가 전훈동무의 손목을 이끌고 수술대로 다가가 제일먼저 그우에 누웠다.

《원장선생님은 몸에 상처를 내면 안되지 않습니까.》

대학동창생인 원장의 몸상태에 대해서 누구보다 잘 알고있는 전훈동무로서는 차마 그의 몸에 수술칼을 댈수가 없었다.

《우리 지하막장에서 한생을 바쳐가고있는 탄부의 모습을 땅우에서 사는 사람들보다 더 훌륭히 가꾸어 내세워줍시다.》

그의 뒤를 이어 초급당비서, 기술부원장을 비롯한 병원의 일군들과 정철, 박인철, 리영철, 김금란동무를 비롯한 일반외과의 의사, 간호원들이 차례로 수술대로 다가갔다.

한점 또 한점…

진영수동무는 끝내 흐느껴울었다. 자기 몸에 피부가 한점한점 이식될 때마다 이를할수 없는 사랑의 힘이 뭉뭉 와닿는것을 느꼈다.

모두 18점, 여기에 혈육의것은 하나도 없었다. 남편의 몸에 많은 피부들이 이식된것을 뒤늦게야 알게 된 진영수동무의 안해 김연단녀성은 뜨거운 눈물을 쏟고야말았다.

《선생님, 세대주의 몸에야 응당 안해인 저의 피부를 먼저 이식해야 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럴수 있습니까.》

목놓아 진정을 토로하는 김연단녀성에게 원장 고영준동무는 《아주머니, 우린 진영수동무가 하루빨리 완쾌되여 자기 초소에 다시 설수만 있다면 더 바랄것이 없습니다.》라고 따뜻이 이야기하였다.

지금 진영수동무의 온몸에는 70일전투의 나날 청범한 탄부를 위해 바쳐온 평양시제1인민병원 의료일군들의 정성이 그대로 피줄기가 되여 뛰어있다.

사회주의보건제도의 혜택아래 두번다시 태여난 혹행의 탄부, 한생 동발나무가 되여 받들어온 이 땅우에 이처럼 아름다운 인간들이 살고있다는것을 그는 자기의 산 체험으로 간직하였다.

그는 머지않아 건강한 몸으로 또다시 동발나무를 세워나갈것이며 조국이 두번다시 안겨준 삶을 은혜로운 그품을 위해 깡그리 바쳐갈것이다.

그가 세워가는 동발나무, 그우에 우리 조국이 있다.

그가 받들어가는 조국땅에는 바로 한생 땅속길을 묵묵히 걸어온 자기를 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내세워준 미더운 보건일군들이 있으며 모든 사람들의 생명을 지켜주고 보살펴주는 가장 우월한 우리의 사회주의보건제도가 있다.

김신향

길주땅의 백도라지분조

길주군 금천협동농장 약초분조는 사람들로부터 백도라지분조라는 유다른 이름으로 불리우고있다. 이곳 분조원들은 백도라지를 전문으로 가꾸는 사람들이 아니다. 그런 이들이 백도라지분조원들로 불리우고있는데는 가슴뜨거운 사연이 깃들어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세상에 우리 인민과 같이 당과 수령을 진심으로 받드는 인민은 없습니다.》

지금으로부터 27년전 4월 어느날 아침이였다. 배천군의 한 가정을 소개한 《로동신문》기사를 읽는 약초분조원들의 가슴은 후덥게 달아올랐다. 기사의 주인공들인 아버지와 아들, 손자 3대가 어버이수령님을 충정으로 받들어갈 마음으로 수십년을 이어오며 자기들이 가꾼 백도라지를 만경대고향집주변에 정성껏 심어왔던것이다.

약초분조원들은 어버이수령님께서 계시는 평양으로 마음달리는것을 억제할수 없었다. 그들처럼 충정의 한마음을 바쳐갈 결심이 분조원들의 가슴속에 굳건히 자리잡았다. 그들은 비경지를 개간하여 새땅을 얻어냈고 거름도 듬뿍 내여 알심있게 경구었다. 거기에 백도라지씨를 심고 정성껏 가꾸었다.

이렇게 심어가꾼 백도라지를 처음으로 만경대고향집주변에 심었을 때 그들의 기쁨은 얼마나 컸던가. 그때부터 약초분조원들은 해마다 자기들의 지성이 깃든 백도라지를 만경대고향집주변에 심군 하였다.

세월은 흘러 약초분조원들의 대는 바뀌였지만 충정의 마음은 오늘까지 변함없이 이어지고있다. 아침일찍 백도라지포전부터 찾는것은 지난 수십년간 이곳 분조원들의 변함없는 습관이고 하루일과의 첫 공정이기도 했다.

그들의 소행이 점차 군은 물론 다른 시, 군들에도 알려져 백도라지를 심고 가꾸는 방법을 배우기 위해 수많은 사람들이 찾아왔다.

언제인가는 길주군 길주소학교의 서류정학생이 찾아와 자기 손으로 백도라지를 키우겠다고, 그래서 꿈속에서도 가고싶은 만경대고향집과 금수산태양궁전주변에 자기가 키운 백도라지도 뿌리내리게 하겠다고 절절한 심정을 터놓아 분조원들을 감동시키였다.

이런 가슴뜨거운 사연들이 한해두해 엮어지는 속에 어느덧 그들은 백도라지분조원들로 불리우게 되였다.

백옥같은 흰 꽃잎을 활짝 펼치고 꼿꼿이 서있는 백도라지, 그것은 곧 분조장 심숙동무와 김일남, 김정식, 리철남, 림성국, 장명옥, 박춘희, 박영애동무를 비롯한 고결한 충정으로 불타는 이곳 분조원들의 모습이였다.

얼마전에도 분조장 심숙동무와 분조원들은 자기들의 지성과 수많은 인민들의 충정의 마음이 깃들어있는 백도라지와 관리도구들을 안고 금수산태양궁전 수목원과 만경대혁명사적지를 찾았다.

이런 고결하고 아름다운 충정의 마음들에 떠받들려 위대한 수령님들의 념원을 더 활짝 꽃피우고 경애하는 원수님의 령도따라 최후의 승리를 앞당겨오기 위한 오늘의 70일전투의 하루하루가 빛나는 위훈으로 새겨지는것이다.

본사기자 조경철

기지건설 대외경제성들격대에서— 철야진군의 하루하루를 혁신으로 빛내여가고있다 —세포지구 축산

본사기자 림학락 찍음

대가정의 륜리, 미덕의 향기

참된 충복

얼마전 우리는 승호군의 영예군인들이 보내온 여러통의 편지들을 받게 되였다.

그들의 이름은 각이하였지만 편지에는 하나와 같은 부탁이 실려있었다.

군안의 영예군인들을 친혈육처럼 보살펴주는 승호군 일군들의 소행을 널리 소개해달라는것이였다.

승호군 읍 86인민반에서 살고있는 특등영예군인 남강철동무는 제대된 후 10여년이 흘렀지만 변함없이 병치료와 생활의 구석구석을 친혈육의 심정으로 돌봐주는 군당책임비서를 비롯한 군당위원회 일군들의 소행을 전하면서 우리 당의 고마움을 가슴깊이 느끼게 되였다고 토로하였다.

근대보건일군들의 적극적인 방조속에 병치료를 받으면서 의학공부까지 하였다는 남강철동무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영예군인들을 위해 바쳐가는 이곳 일군들의 헌신적인 노력을 엿볼수 있었다.

승호1로동자구 48인민반에서 사는 특등영예군인 백림혁동무는 지난해 10월 만사람의 축복속에 새 가정을 이루었다.

군안의 일군들이 시공자가 되여 번듯하게 지어준 새 집에 행복의 보금자리를 편 백림혁동무는 부모를 대신하여 결혼상도 차려주고 살림도구들까지 그윽하게 마련해준 군인민위원회와 군인민보안서 일군들의 진정에 목이 메여 감사의 눈물을 흘리고 또 흘리였다.

영예군인들이 혁명의 꽃을 변함없이 피워나가도록 밑거름이 되고 뿌리가 되여 온갖 지성을 바쳐가고있는 이런 일군들이 있어 화목한 사회주의대가정에는 혁명의 꽃이 더욱더 붉게 만발하고있는것이다.

본사기자

친혈육

제가 조선예술영화촬영소 로동자 리화숙동무를 알게 된것은 지금으로부터 7년전이였습니다. 그동안 그가 전쟁로병이였던 저의 남편과 저를 위해 기울인 정은 참으로 뜨거웠습니다.

늙은 내외가 적적해할세라 텔레비죤수상기도 가져다주고 몸보신에 쓰라고 아들 김일과 함께 기른 토끼로 곰도 만들어준 리화숙동무였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리화숙동무가 우리 가정만 돌봐준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러던 지난해 10월 어느날 시내구경을 가자고 하면서 찾아온 리화숙동무의 손에 이끌려 남편과 함께 뻐스에 오르면 저는 그만 놀라지 않을수 없었습니다.

뻐스안에는 시인의 수심명이 가득한 청춘들이 있었습니다. 그 때 리화숙동무는 《이것이 우리 가정의 전쟁로병들과 영예군인들이라고있었는데 알고보니 그들도 리화숙동무와 한식솔처럼 지내온 사람들이였습니다. 그때 놀라운 눈길로 서로 바라보던 우리는 지난 여러해동안 남모르게 바쳐온 리화숙동무의 지성에 감동을 금할수 없었습니다.

그는 이미전에 인민군대원호사업과 618건설돌격대원들에 대한 지원사업을 성심성의로 하여 위대한 장군님께 기쁨을 드리였으며 그후에도 아들과 함께 천리마제강련합기업소를 비롯한 주요전투장들에 많은 지원물자를 보내주었습니다.

저의 남편이 살아있을 때에는 물론 돌아간 다음에도 리화숙동무는 제가 외로와할세라 자주 찾아와 친딸의 정을 부어주군 합니다.

정말 지내볼수록 잊지 않은 녀성입니다.

락랑구역 락랑3동 50인민반 리선비

부모없는 세 남매의 친혈육이 되여

청단군인민보안서 인민보안원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온 나라에 서로 돕고 이끄는 고상하고 아름다운 미풍이 차넘치게 하여 우리 사회를 화목하고 단합된 일심단결의 대가정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70일전투가 한창이던 지난 2월말 어느날이였다.

그날도 짬시간을 내여 자기들이 마련한 많은 지원물자를 안고 청단군 영산협동농장 제9작업반으로 달려가 농사일을 돕던 파장 김명일동무를 비롯한 청단군인민보안서 인민보안원들은 작업반 초급일군으로부터 이런 이야기를 듣게 되였다.

작업반의 정경희동무에게 두 동생이 있는데 아버지는 10여년전에 돌아가고 어머니도 돌아간지 여러해째 된다는것, 정경희동무와 녀동생은 농장에서 일하고있으며 남동생은 고급중학교졸업을 앞두고있다는것 …

그날 인민보안원들은 하루일이 끝난 후 세 남매가 살고있는 집을 찾았다. 생각할수록 자책되는바가 너무도 컸다.

《지금까지 우리는 말로만 인민을 위해왔소. 이제라도 저 세 남매의 집을 번듯하게 지어줍시다.》

김명일동무의 말에 인민보안원들이 적극 호응해나섰다.

다음날부터 제9작업반 달곡장옆에서는 새 살림집건설이 시작되였다. 인민보안원들은 작업반의 농사일을 도와주는 바쁜 속에서도 기초구뎅이도 파고 블로크도 찍으면서 살림집건설을 적극 내밀었다.

그러던 3월초 어느날 집건설에 필요한 자재를 싣고 작업반을 찾았던 김명일동무는 뜻밖의 기쁜 소식에 접하게 되였다.

세 남매의 맏이인 정경희동무가 농장에서 함께 일하는 청년과 일생을 같이하기로 약속했다는것이였다.

살림집건설이라는 아름찬 과제가 눈앞에 있지만 김명일동무는 두 청춘남녀의 결혼식을 자기가 맡아 치르어주리라 속다짐했다.

머칠후 남편의 결심을 알게 된 그의 안해 리옥동무는 결혼식날이 친정어머니의 생일이였지만 정시에 인민을 위한 일이라면 만사를 제치고 도맡아나서군 하던 남편의 진정을 더해주던 마을사람들모두는 친혈육의 정이 스민 갖가지 생활용품들을 보며 친부모의 정그대로이라고, 결혼상만 차려주는줄 알았는데 인민보안원들이 정말 다르다고 감동을 금치 못해하였다. 지난 기간 군안의 영예군인들과 부모잃은 아이들을 친혈육의 심정으로 돌봐주고 작업반의 농사차비와 작업반원들의 생활에 이르기까지 물심량면으로 적극 도와준 인민보안원들이였다.

얼마전 정경희동무의 동생들이 아담하게 꾸려진 새 보금자리에 들어설 때 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뜨거운 눈물을 흘렸던가.

청단군의 부모잃은 세 남매가 받아안은 사랑과 정에 대한 이야기, 비록 이 땅 어디서나 들을수 있는 평범하고도 례사로운 이야기이지만 그것은 인간사랑의 화원인 우리 사회의 참모습을 보여주는 또 하나의 아름다운 찬가로 사람들의 심장속에 깊이 새겨졌다.

본사기자 홍성철

한시도 늦출수 없고 한순간도 소홀히 할수 없는것이 반제계급교양이다

계급투쟁의 진리를 새겨주는 잊지 못할 이야기

대동군 성삼리에서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당원들과 근로자들속에서 반미교양, 계급교양을 강화하여 그들이 높은 계급의식을 가지고 온갖 계급적원쑤들을 반대하여 견결히 싸워나가도록 하여야 합니다.》

얼마전 충정의 70일전투로 들끓고있는 대동군 성삼리를 찾은 우리는 이곳 혁명사적지에서 장사로 일하고있는 김금숙동무로부터 이런 이야기를 듣게 되였다.

온 나라 농촌이 토지개혁법령을 받아안고 환희로 들끓고있던 주체35(1946)년 3월이였다. 대동군 성삼리(당시 강서군 성태면 성2리)에서는 아직 각성되지 못한 몇명의 농민들이 지주놈들의 피임에 넘어가 《진정서》라는것을 면에 올려보내는 일이 생기였다. 그 내용인즉 《우리 마을의 지주들은 선량한 사람들이니 추방시키지 말고 한동리에서 같이 살게 해달라.》는것이였다.

그무렵 강서군 반석면(당시)을 현지지도하시던 과정에 이 사실을 료해하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그길로 험한 진창길을 걸으시여 마을을 찾으시였다.

이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리농촌위원회 위원장이였던 김해선동무를 만나시고 농민들속에서 사상교양사업을 강화할데 대하여 간곡히 교시하시면서 계급적원쑤들의 책동에 경각성을 높이고 반동들과의 투쟁을 힘있게 벌려나가야 한다고 해우쳐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귀중한 가르치심을 받아안은 김해선동무는 농민들속에 들어가 그들을 사상적으로, 계급적으로 깨우쳐주고 각성시키면서 지주놈들을 청산하고 단 며칠사이에 마을의 토지개혁사업을 성과적으로 끝냈다.

그러던 김해선동무는 리의 토지개혁총화문건을 면에 올려보내는 날 밤길을 걸어 집으로 돌아오다가 불의에 반동놈들의 습격을 받고 희생되였다.

이 사실을 보고받으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김해선동무는 지주들과 잘 싸웠다고 하시면서 그의 장례를 국가장으로 하여야 하겠다고, 장의위원회도 구성하고 추도사도 잘 준비하여 그의 장례식이 계급적원쑤들을 단죄하는 농민들의 투쟁마당으로 되게 하여야 한다고 하시였다.

장의식이 거행되던 날 장중한 추도곡이 울리는 가운데 김해선동무의 령구가 천천히 움직이였다. 수많은 일군들과 농민들이 그뒤를 따랐다. 묘소에서는 조총이 울리였다. 그 조총소리를 들으며 리안의 농민들을 비롯한 참가자들은 피를 끓고 날뛰는 계급적원쑤들과는 결판을 볼 때까지 끝까지 싸워야 한다는 진리를 다시금 뼈에 새기였다.

《지주를 비롯한 계급적원쑤들의 본성은 절대로 변하지 않으며 원쑤들과는 끝까지 싸워야 한다고 하신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의 정당성을 우리 리의 사람들은 지난 조국해방전쟁의 전략적인 일시적후퇴시기 다시금 깊이 느끼게 되였습니다.》

리계급교양실에서 우리와 만난 김정화동무의 말이였다.

옛 치지를 되찾을 망상을 품고 마을에 기여든 계급적원쑤들은 마을을 개싸다니듯 하며 닥치는대로 사람들을 붙잡아 야수적인 고문을 들이대였다. 그러나 마을에 찾아오시여 주신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를 심장에 새기고 일떠선 마을사람들의 불굴의 의지를 꺾을수 없었다.

성2리에서 리자위대장으로 일하던 김몽일을 체포한 원쑤들은 모진 고문에도 그가 굴복하지 않자 폭한구뎅이로 끌고가 야수적인 방법으로 학살하였다.

면의 한 일군으로 일하던 박원두를 붙잡은 원쑤들은 《로동당원들이 숨은 곳을 대라.》고 뇌까리며 그를 밤나무에 묶어놓고 총탄으로 머리를 사정없이 내리쳤다.

그래도 그의 입을 열수 없게 되자 원쑤들은 《토지개혁을 한 손가락을 자르겠다.》고 떠벌이며 외양칸에 있던 작두를 가져다가 손가락, 발가락을 모두 잘라버렸다. 그리고는 총창으로 그의 두눈을 도려낸 다음 두손목에 못으로 구멍을 뚫고 쇠줄로 묶은 후 여기저기 끌고다니다가 폭한구뎅이에 세워놓고 총탄을 마구 퍼부었다. 이런 방법으로 원쑤들은 수많은 일군들과 당원들, 농민들을 학살하였다.

그때로부터 많은 세월이 흘렀고 강산은 변하였다. 그러나 절대로 변할수 없는것이 있으니 그것이 바로 계급투쟁의 진리이다.

들끓는 포전에서 우리와 만난 김해선동무의 손자인 초급당일군 김인철동무는 이렇게 말하였다.

《오늘도 우리 리의 일군들과 농업근로자들은 잊을수 없는 그 봄날에 울린 조총소리를 되새기며 한없이 귀중한 사회주의 우리 제도를 목숨처럼 사랑하고 끝까지 지켜갈 결의를 가다듬군 합니다.》

본사기자 현경철

미제원쑤놈들을 씨도 없이 죽탕쳐버릴 불타는 결의에 넘쳐있는 청년대학생들 —평성수의축산대학에서— 본사기자 찍음

멸적의 의지로 피가 끓게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위대성교양과 김정일애국주의교양, 신념교양, 반제계급교양, 도덕교양을 강화하여 모든 당원들과 군인들, 근로자들을 선군혁명투사들로 튼튼히 준비시키며 조국보위와 강성국가건설의 전투장마다에서 애국충정의 불길, 참조와 혁신의 불바람이 세차게 나래치게 하여야 합니다.》

대안친선유리공장에서 70일전투의 불길높이 철야진군을 다그쳐나가는 일군들과 당원들, 근로자들을 반제계급의식으로 더욱 철저히 무장시키기 위한 사업에 큰 힘을 넣고있다.

공장당위원회에서는 남강도 미제와 박근혜역적무리들이 침략전쟁책동에 미쳐날뛰고있는 현실조건에 맞게 모든 일군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잔악무도한 원쑤들을 죽탕쳐버리고야말 멸적의 투지로 심장을 불태우도록 하기 위한 사업을 더욱 짜고들었다.

모든 당조직들에서 일군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속에서 반제계급의식을 더욱 높이는것을 70일전투에서 확고히 틀어쥐고나갈 중요한 문제의 하나로 제기하고 대안구역계급교양관과 수산리계급교양관, 신천박물관참관을 정상화하면서 반제계급의식을 높여주기 위한 사업을 여러가지 형식과 방법으로 참신하게 진행하고있다.

조성된 정세의 요구에 맞게 공장의 모든 일군들은 반제계급교양자료들을 가지고 70일전투로 들끓는 생산현장들에 나가 무분별하게 날뛰는 남강도 미제와 박근혜역적무리들에 대한 치솟는 적개심과 원쑤격멸의 의지로 심장을 끓이게 하는 반제계급교양사업을 실속있게 벌리고있다. 여러 계기마다에서 계급교양전람 《신천땅의 피의 교훈을 잊지 말자》를 비롯하여 8월 기념 《미제의 죄악을 고발한다》 전시회 등 교양자료들을 가지고 반제계급교양을 실속있게 진행하여 반제계급교양의 도수를 더한층 높이고있다.

이와 함께 공장에서는 수산리계급교양관관리운영에 도움이 되는 일을 스스로 맡아하여 당원들과 근로자들, 청소년학생들에 대한 반제계급교양에 적극 이바지하고있다.

70일전투의 나날이 흐를수록 공장의 일군들과 당원들, 근로자들은 남강도 미제와 박근혜역적패당을 격멸할 멸적의 투지를 가다듬으며 매일 전투계획을 어김없이 수행하고있다.

조선인민군 최고사령부 중대성명에 접한 그때 원료직장장 조명길동무를 비롯한 수백명의 공장일군들과 종업원들은 남강도 미제와 박근혜괴뢰패당을 가차없이 짓뭉개버리고야말 원쑤격멸의 기상안고 인민군대복대, 입대를 열렬히 탄원해나섰다.

본사기자

반미계급교양의 도수를 높여

개성시 림한리 당위원회에서 농장원들에 대한 반미계급교양사업에 큰 힘을 넣고있다.

리에서는 사업계획에 따라 작업반별로 리계급교양실, 시계급교양관을 참관하고 복수결의모임을 진행하도록 하고있다.

특히 미제의 야수적만행을 날날이 발가놓는 력사의 교말장인 신천박물관참관을 의의있게 진행하여 모든 일군들과 농장원들이 미제와 계급적원쑤들에 대한 복수심으로 심장을 끓이게 하고있다.

리당위원회와 관리위원회 일군들은 물론 작업반들의 초급일군들이 농장원들과 함께 일하며 현정세의 요구에 맞게 그들의 반미계급의식을 높여주기 위한 사업도 실속있게 진행하고있다.

얼마전에도 어느 한 작업반에 나간 리당위원회의 한 일군은 휴식참에 농장원들에게 지난 조국해방전쟁시기 미제침략자들이 저지른 귀축같은 만행을 실례를 들어가며 해설해주고 지금도 우리 조국을 호시탐탐 노리며 전쟁도발책동에 미쳐날뛰는 원쑤들의 머리우에 복수의 불벼락을 퍼붓는 심정으로 맡은 농사일을 힘있게 다그치자고 호소하였다.

농장의 일군들과 농장원들은 우리 인민에게 헤아릴수 없는 불행과 고통을 들씌운 침략자 미제를 천백배로 복수할 열의밑에 당면한 영농작업에서 날마다 혁신을 일으키고있다.

로농통신원 류승균

《유엔의 대조선〈제재〉는 왜 부당한가》

미국정치평론가 미국의 대조선적대시정책을 폭로단죄

미국의 정치평론가 스티븐 고완즈가 얼마전 인터네트홈페지에 《유엔의 대조선〈제재〉는 왜 부당한가—미국이 실지로 원하는것은 조선반도비핵화가 아니라 조선반도〈미국화〉이다—》라는 제목으로 당국의 대조선적대시정책을 폭로단죄하는 론평을 올렸다.

필자는 다음과 같이 썼다.

북조선은 지금까지 4차례의 핵시험을 진행하였다. 그리고 여러기의 위성들을 우주궤도에 진입시켰는데 미국은 이것을 은폐된 《미싸일발사》로 락인하였다.

그러나 같은 기간에 미국은 새형의 핵무기를 개발하고 새로운 대량살상무기를 만들어냈으며 저들의 핵무기고를 유지현대화하기 위하여 막대한 자금을 소비하였다.

또한 이 기간에 어떤 나라들은 수많은 위성들을 쏴올렸고 어떤 나라들은 장거리대륙간탄도미싸일시험을 하였다.

미국과 많은 동맹국들이 자기의 탄도기술을 시험하고 핵병기고를 강화해나가고있는데 왜 북조선만 특별취급을 받아야 하는가?

유엔안전보장리사회가 지난 3월 북조선에 적용한 《제재결의》는 그 어떤 합법적근거도 없는것이다.

포위속에 들어있는 이 나라가 진행한 핵시험이나 위성발사는 그 어떤 국제법에도 저촉되지 않으며 미국과 그 추종세력들에게 아무런 현실적위협으로도 되지 않는다.

이것은 미국의 군장성들이나 신문들도 다같이 인정한 사실이다.

북조선은 합법적인 절차를 밟아 핵무기전파방지조약으로부터 탈퇴하였기때문에 핵기술을 군사적목적에 리용하지 말아야 한다는 그 어떤 국제적의무의 구속으로부터 제외되고있다.

지난 2월 북조선이 위성을 쏴올리기 위하여 리용한 로케트가 대륙간탄도미싸일이라고 해도 대륙간탄도미싸일의 개발, 보유 또는 시험을 금지하는 법은 없다.

많은 나라들이 위성을 쏴올리는데 로케트기술을 리용하고있으며 대륙간탄도미싸일개발도 다그치고있다.

적지 않은 나라들이 핵무기를 보유하였으며 그들중 미국을 제외한 대다수 나라들은 침략자를 제압하고 핵위협을 막기 위하여 핵병기고를 유지하고있다고 한다.

북조선은 저들의 핵무기가 순수 방어적성격을 띤다고 하였으며 그 주장은 믿을만 하다.

미국은 북조선을 핵무기로 끊임없이 위협하고있다.

동북아시아에 위치한 이 나라가 왜 자체방위를 위하여 핵무기를 개발할 결심을 하였는가 하는것은 기본적으로 다음과 같이 풀이된다.

북조선은 미국의 항시적인 핵 및 상용무기공격위협에 직면해있다.

— 1993년 미전략군사령부는 저들의 대륙간탄도미싸일 일부가 북조선을 겨냥하고있다고 공개적으로 선포했다.

— 2002년 부쉬행정부는 리비아, 수리아, 중국, 로씨야, 이란, 이라크와 함께 북조선을 잠재적인 핵선제공격대상으로 지명하였다.

— 미국의 공개정치연구소인 스팀슨쎈터에 의하면 1970년부터 2010년까지의 기간에 미국은 북조선을 핵으로 없애치우겠다고 6차례나 위협하였다.

— 한때 미국무장관 포웰은 미국이 북조선을 제가루로 만들수 있다고 떠들어댔다.

특히 부쉬가 이 나라를 이란, 이라크와 함께 《악의 축》에 포함시킨것은 사실상 북조선에 선전포고를 한것이나 마찬가지였다.

그후 얼마 지나지 않아 이라크가 허위증거에 따라 미국과 영국에 의해 강점당하였다.

미국과 영국은 이라크가 대량살상무기를 파괴할데 대한 유엔안전보장리사회의 결의를 무시하고 그것을 감추어놓고있다고 압력을 가하였다.

이라크는 그 압력에 못이겨 보유하고있던 대량살상무기고를 없애버렸으며 결국 이 허점을 리용한 워싱톤과 런던의 공격을 막아낼수 없었다.

그리하여 평양이 핵무기전파방지조약에 계속 남아있도록 하기 위한 일련의 협상들이 진행되였다.

2002년 1월 부쉬가 북조선을 《악의 축》으로 지명한 후 평양은 핵무기전파방지조약에서 탈퇴할 의향을 밝혔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반대하는 선전포고나 다름없는 부쉬의 선언은 반제자주적인 나라들을 대상으로 워싱톤이 오래전부터 해오던 위협에 비해볼 때 빙산일각에 불과하다.

북조선은 미국이 힘으로 세계를 제패하려 하고있다고 하면서 이러한 저들의 목적실현에 방해가 되는 임의의 나라들에 대한 핵공격을 저어하지 않겠다는것을 보여준 부쉬행정부의 핵공격계획을 거들고 핵무기전파방지조약으로부터의 탈퇴를 정당화하였다.

북조선이 핵무기를 개발하게 된 리유

북조선은 반세기이상 지속되는 미국의 대조선적대시정책과 핵위협으로부터 자기의 자주권과 생존권을 지키기 위하여 핵무기를 개발하였다고 주장하고있다.

미국의 대조선적대시정책은 부쉬행정부가 제창한 《핵 및 전쟁위협》을 계기로 최절정에 달하였다.

북조선의 주장을 핵보유국인 영국의 주장과 비교해보는것이 필요할것이다.

영국정부의 2006년 백서는 《영국의 핵무기는 자기의 사활적리익에 대한 핵위협이나 침략행위들 다시말하여 다른 이여의 수단으로 대응할수 없는 도전들을 억제하거나 사전에 막는것을 목적으로 하고있다.》고 밝혔다.

다른 핵보유국인 로씨야도 자기의 핵병기고를 유지하는 리유에 대하여 류사한 론거를 들고있다.

미국의 2015년 국가안전전략에는 《미국은 자기의 전략능력을 보존할수 있는 믿음직하고 확고하며 효과적인 억제력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금을 투자할것이다.》고 지적되여있다.

핵보유국들이 자기의 핵무기고를 유지하기 위하여 들고있는 론거들은 강대국들의 위협을 당할수 있는 약소국들에 있어서보다 더 적중한것으로 된다. 나라가 작고 힘이 약할수록 잠재적인 적이 자기를 위협하거나 침략해오기 전에 한번 더 심사숙고하도록 하기 위하여 핵무기가 더더욱 필요하다는것이다.

2010년 당시 미전략군사령관은 《워싱톤 포스트》지 기자에게 《원자무기가 개발된 후 그 어느 핵보유국도 점령당하였거나 그 위협을 받은적이 없다.》고 말한바 있다.

북조선과 같이 항시적인 위협을 받고있는 나라들이 핵무기를 보유하는데로 나가지 않으면 안되게 된 리유와 관련하여 루씬은 2012년 2월에 리아 노보스찌통신에 기고한 글에서 《만약 내가 호주머니에 원자탄을 가지고있다면 누구도 나를 건드리지 못할것이다. 그것은 얻을것보다 잃을것이 더 많기때문이다. 그러므로 원자탄이 없는 사람들은 앉아서 〈인도주의적간섭〉을 기다리는수밖에 없을것이다.》고 썼다.

이라크점령후 미국무성 차관 볼톤은 북조선 등에 《이라크사태에서 응당한 교훈을 찾아야 할것》이라고 혼시하였다.

북조선은 교훈을 찾았다. 그러나 볼톤이 바라던 그런 교훈은 아니다.

교훈은 무장해제가 침략을 불러오는 초청장과도 같다는것이였다.

이것은 그후 리비아사태에 의해서도 증명되였다.

서방으로부터 《무해》를 받으려는 엉터리없는 미련을 가지고 리비아는 대량살상무기들을 파괴해버렸으며 결국 침략당하였다.

이라크도 이전에 같은 바보짓을 하였던것이다.

원종합대학의 한 교수는 최근 20여년동안에 일어난 3가지 중대사변들은 핵무기를 개발하려는 평양의 결심이 옳았다는것을 증명해주고있다고 강조하였다.

이전 쏘련의 붕괴와 이라크, 리비아사태들을 목격하면서 북조선은 미국의 핵위협에는 타협이나 후퇴가 아니라 오직 핵으로 당당히 맞서야 한다는 진리를 터득하게 되였다.

오늘 조선반도에서 핵전쟁이 일어나지 않고있는것은 전적으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전쟁억제력을 부단히 강화해왔기때문이다.

유엔상임리사국들의 이중기준

북조선에는 핵무기개발을 포기하라고 설교하면서도 5개 유엔상임리사국모두가 저들의 핵병기고를 현대화하는데 박차를 가하고있다는 사실은 참으로 언어도단이 아닐수 없다.

바로 이 5개 상임리사국들은 북조선이 저들의 말을 듣지 않는다고 하여 또다시 새로운 《제재》를 가하고있다.

오바마는 10년동안에 800억 US$를 투자하여 핵병기고를 현대화할것을 확약하였으며 영국은 4척의 핵잠수함현대화에만도 막대한 자금을 처넣었다. 프랑스는 핵탄과 미싸일 그리고 전략핵잠수함들을 현대화하고있으며 로씨야와 중국도 부단히 핵무기고의 현대화를 다그치고있다.

이것이 바로 핵무기전파방지조약의 요구에 맞게 군축을 실현하여야 할 핵보유국들이 하는 짓들이다.

뿐만아니라 미국은 신형대량살상무기를 적극 개발하고있다. 미국은 북조선을 념두에 두면서 정밀유도원자탄 그리고 타격능력에 있어서 전략핵무기와 근사한 무기도 개발하고있다.

미국은 절대로 핵무기를 먼저 사용하지 않겠다는 선언을 하지 않고있다.

《핵무기없는 세계》를 떠드는 오바마는 미국이 먼저 핵무기를 사용하거나 비핵국가들을 반대하여 그것을 사용하지 않겠다는데 대해서는 침묵을 지키고있다.

위성발사도 마찬가지이다.

한해동안에 100개가 넘는 위성들이 우주공간에 발사되고있다.

그러나 오직 북조선의 위성발사만이 유엔안보리사회의 《규탄》을 받았다.

어느 한 나라가 2012년에 장거리대륙간탄도미싸일을 시험발사하였을 때 유엔안보리사회는 아무런 제재도 가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나토와 미국은 이를 《축하》해주었다.

핵무기전파방지조약에 가입한적이 없는 그 나라는 100여개의 핵탄두를 보유하고있을뿐아니라 그것을 장거리목표에로 운반할수 있는 능력도 가지고있다.

이런 나라에 대한 유엔과 서방의 《묵혜》나 《보상》이 너무지나치지 않는가?

미국은 북조선이 핵억제력을 강화하는것을 한사코 방해해나서고있다.

우주의 평화적개발을 위하여 나라들이 리용하고있는 로케트기술개발을 금지하는 국제법은 없으며 대륙간탄도미싸일발사시험을 금지하는 법도 없다.

북조선의 위성발사를 문제시하는 《결의》를 채택한 유엔안보리사회의 처사는 명백히 월권행위이다.

유엔안보리사회가 어느 나라는 위성발사와 대륙간탄도미싸일시험을 할수 있고 어느 나라는 그것을 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요하는것은 다른 말로 누구는 자기를 지키기 위한 자위권을 가질수 있고 누구는 가질수 없다고 하는것이나 같다.

이러한 권능을 유엔성원국들은 유엔안보리사회 상임리사국들에 결코 위임하지 않았다.

누가 가장 잔인한 정권인가?

미국은 절대로 북조선이 핵탄두를 장착한 대륙간탄도미싸일을 개발하지 못하게 할것이라고 하면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가장 잔인한 정권》이라고 하였다.

이것이 사실인가?

북조선은 국가가 실시하는 계획경제를 가지고있다. 북조선은 자주권을 지키면서 인민들의 물질적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노력하고있다.

력사적으로 볼 때 일본의 식민지로 있었으며 미군의 남조선강점으로 하여 민족분렬의 고통을 겪고있는 리유로 북조선은 자주권을 특별히 중시하고있다.

미군은 1945년이래 항시적으로 남조선에 주둔해있으며 편타곤은 옹사시 남조선군의 통수권을 쥐고있다.

그러나 북조선에는 외국군사기지도 군대도 없으며 북조선군대는 단 한번도 국경밖에서 싸운적이 없다.

반면에 남조선은 월남에서 침략전쟁을 치르면 미국에 편승하여 고용병노릇을 한바 있다.

북조선이 남조선을 괴뢰라고 부르는데는 타당성이 있다.

남조선은 미국의 핵우산밑에 움츠리고있지만 북조선은 다른 나라의 핵보호를 받은적이 없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무상치료와 무료교육실시, 무료주택사용, 거저나 다름없는 공공운수수단혜택 등 전형적인 공산국가색채가 진한 나라이다.

서방보도수단들은 북조선과 관련한 심히 외곡되고 믿기도 어려운 사실들을 류포시키고있다.

그것은 북조선이 실시하는 정책, 북조선의 력사와 경제에 대하여 소개하는것이 아니라 이 나라의 영상에 먹칠하자는데 그 목적이 있다.

미국은 유엔안보리사회가 채택한 《잔인한 정권》을 반대하는 《결의안발기국》으로 되였다고 한다.

미국은 사실상 잔인한 정권들인 사우디 아라비아, 이스라엘 등을 특혜추종국가들로 취급하면서 이 나라들의 억압자들과 호전분자들을 제재대상으로부터 비호하고있으며 그들의 야만성을 더욱 부추기고있다.

조선, 월남, 그레네이더, 파나마, 아프가니스탄, 이라크와 히로시마, 관따나모에서의 끔찍한 사진들, 《테로와의 전쟁》시기 제포된 수많은 수감자들을 고문으로 사살한 사진, 무인기의 무차별타격으로 무참히 살해된 사람들 그리고 멸종될 위험에 처한 북아메리카원주민들, 아프리카사람들에 대한 가혹한 노예화…

그 모든것을 조장한 미국이야말로 이 세상이 알지 못하는 가장 야만적이고 잔인한 국가이다.

북조선과의 관계에서 미국이 안고있는 진짜 문제점

유독 북조선에만 제재를 가하려는 사람들이 그 근거로 들고있는것은 《북조선위협설》이다.

그러나 그것은 무지막지한 궤변에 불과하다.

진짜 리유는 국가적소유나 계획경제를 유지하면서 미국에 자기의 정치경제적자주권을 추호도 양보하지 않는 북조선에 대한 미국의 침략정책을 정당화하려는데 있다.

2016년 미태평양사령관은 《북조선은 미국에 있어서 존재하는 위협이 아니다.》고 하였으며 미국무성 기자는 《북조선의 핵무기는 남조선에도 그렇고 일본에도 위협으로 되지 않는다.》고 말하였다.

미국은 왜 자기식의 사회경제제도를 가지고있다는 리유로 북조선에 수십년세월 제재를 가하고있는가?

전 미국무성 조선문제담당과장은 미행정부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전략적관계를 맺을 생각이 없으며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을것이라고 하였다.

《북조선의 위협》을 떠드는것은 미군수뇌업체들이 저들의 방대한 군사분야투자를 정당화하고 막대한 리윤을 얻는데만 유리하다.

북조선을 《호전적》이고 《도발적》이며 《위협적》이라고 하는것은 미국이 조선반도에 항시적으로 주둔할 명분을 세우기 위한것이다.

미국이 실지로 핵무기전파방지에 관심이 있다면 침략전쟁을 일으키겠다는 위협도 하지 않고 다른 나라를 제더미로 만들겠다고 핵공갈도 하지 않았을것이며 핵선제타격대상나라명단을 작성하지도 않았을것이다.

그리고 조선반도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으로 하여금 항시적인 전시태세를 취하지 않으면 안되게 하는 도발적인 전쟁연습도 매해 벌리지 않았을것이다.

다시말하여 핵위협을 당하고있는 나라들이 자기의 정치경제적자주권을 지키기 위하여 핵무기를 보유하지 않으면 안되겠다는 결심을 가지도록 만들지 않았을것이다.

그러면 미국은 조선반도에서 미군을 철수시키고 조선사람들이 완전독립을 향유하도록 했을것이다.

미국은 이렇게 처신했어야 했다.

그렇지만 미국은 그렇게 하지 않을것이다.

왜냐하면 그들은 저들의 가치관에 포로되여있기때문이다. 그 가치관이란 다른 나라에 대한 지배권을 추구하는것 다시말하여 다른 나라들의 자주권을 거부하는것이다.

미국은 관료시장과 자연부원, 령토와 로동력을 집어삼켜 저들의 부유층을 더 큰 부자로 만들려 하고있다.

유엔안보리사회의 기타 상임리사국들에 대하여 말한다면 그들은 유엔헌장에 명기되여있고 유엔성원국들의 동의를 받은 권한을 초월하는 월권행위와 같은 비민주주의적행위 즉 누구는 자주권과 자위권을 가질수 있고 누구는 가지지 말아야 한다는 따위의 만능독재자노릇을 하지 말아야 할것이다.

북조선이 유엔안보리사회의 직권람용을 견결히 반대하면서 미국의 온갖 압력에도 굴하지 않고 꿋꿋이 대처해나가고있는것은 세계를 제국주의억압과 인간에 의한 인간의 착취로부터 해방하기 위한 투쟁을 벌리고있는 세계인민들의 경탄과 존경을 자아내고있다.

【조선중앙통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무성 대변인대답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무성 대변인은 미국이 새로운 《제재교리》를 들고나오고있는것과 관련하여 27일 조선중앙통신사 기자가 제기한 질문에 다음과 같이 대답하였다.

최근 미재무성을 비롯한 행정부의 인물들이 다른 나라들에 대한 제재압력책동을 더욱 강화하기 위한 그 무슨 《제재교리》라는것을 들고나오고있다.

력대적으로 미국은 제재를 저들의 침략적인 대외정책실현을 위한 주요수단으로 삼고 저들에게 고분고분하지 않으면 국제법도 아랑곳없이 제재몽둥이를 마구 휘둘러 많은 나라들과 인민들에게 헤아릴수 없는 고통과 불행을 뿌려왔다.

미국이 제창하는 《제재교리》는 저들의 비위에 거슬리는 다른 나라들과 인민들을 굴복시키기 위한 비렬한 모략수법들을 묶어놓은것으로서 강권과 전횡의 본산인 미국에서만 나올수 있는 악의 《교리》이다.

부익부, 빈익빈의 사회적불평등과 대립이 갈수록 첨예해지고 인민들이 휘엄난, 경제난에 허덕이고있으며 자기 기분에 거슬린다고 하여 마구 쏘아대는 총에 무고한 사람들이 맞아죽는 참극이 매일같이 빚어지는 곳이 바로 미국이다.

이러한 미국이 제코는 씻지 않고 남에게 고통만 주려는 《제재교리》따위나 궁리해내는것이야말로 가소롭기 그지없는것이다.

날로 쇠퇴몰락하고있는 미국이 다른 나라들에 대한 제재책동에 매여달리고있는것자체가 부질없는것이지만 미국의 제재가 국제관계에서 부당한 압력과 불평등, 긴장과 대결의 근원으로 되고있다는데 문제가 있다.

미국의 제재몽동이의 피해를 받고있는 아시아,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나라들은 악의 《교리》가 불러올 더 큰 참화를 막기 위해서라도 모두가 각성하여 단합된 힘으로 강권과 전횡의 소굴을 짓부셔버려야 할것이다.

민심이 얼마나 무서운지 다시한번 새겨야 한다

남조선단체가 요구

20일 남조선의 민주민생정화통일주권련대가 20대 《국회》가 분노한 민심을 새겨들을것을 경고하는 성명을 발표하였다.

성명은 이번 20대 《국회》의원선거는 민중이 얼마나 기존 정치세력에 실망하고있는지 여실히 보여주었다고 밝혔다.

민중은 그동안 반민주, 반민생, 반평화정책으로 일관해온 박근혜《정권》과 《새누리당》을 심판하였다고 성명은 주장하였다.

20대 《국회》의원들은 민심이 얼마나 무서운지 다시한번 새겨야 한다고 하면서 성명은 다음과 같은 요구사항을 밝혔다.

첫째, 20대 《국회》는 《세월》호참사진상규명을 위해 적극 나서라.

왜 아이들을 구원할수 없었는지, 박근혜《대통령》은 참사당시 무엇을 하고있었는지, 정보원과 《세월》호참사는 어떤 관계인지 아직도 민중은 답변을 듣지 못했다.

민중이 의심을 가질만 한 정황들이 수없이 나오는데도 박근혜《정부》는 민중에게 《가만히 있으라.》고 강압했다. 가만히 있지 않는 민중을 향해서는 《종북》의 올가미를 씌우고 차벽과 물대포로 대응했다.

《세월》호참사에 대한 진상규명없이 현 《정부》를 민중을 위한 《정부》라고 할수 없다.

둘째, 20대 《국회》는 《대통령》부정선거의혹을 말끔히 해소하라.

박근혜《정부》가 들어앉자마자 부정선거의혹들이 곳곳에서 제기되여왔다. 실제로 정보원이 법을 어기고 조직적으로 정치에 개입한 사실이 밝혀졌다.

정보원이 각종 선거시기마다 해킹프로그람을 구입한 사실이 드러나기도 하였다.

이번 《국회》의원선거에서도 경상남도 진주시 수곡면의 사전투표함에서 100% 《새누리당》의 선거표가 나왔다. 《새누리당》을 찍지 않았다는 사람들이 있는데도 말이다.

《정부》의 조직적인 불법선거가 이루어진것이 아닌가 하는데 대한 의혹을 해소해야 한다.

셋째, 20대 《국회》는 《북풍》관련의혹을 철저히 밝히라.

그동안 보수《정권》은 정치적위기에서 탈출하기 위해 《북풍》을 적극 리용해왔다.

이번 총선거때에도 《북풍》을 조작하였다. 특히 지난해 8월 전쟁위기를 극도로 고조시켰던 군사분계선일대에서의 지뢰폭발과 포격사건은 여전히 의혹이 해소되지 않고있다. 군당국은 《북이 도발했다.》는 그 어떤 론거도 제시하지 못하고있다.

민중은 보수《정권》이 민중의 눈을 속이려 활용하는 《북풍》의 진상을 명백히 알 권리가 있다.

20대 《국회》는 민심을 겸허히 받아들여 《세월》호참사, 부정선거, 《북풍》관련의혹들을 명백히 밝혀내야 한다.

【조선중앙통신】

정처없이 표류하는 난파선

괴뢰국회의원선거전야에 너절한 집안싸움을 벌렸던 《새누리당》의 친박계와 비박계가 요즘은 또 선거패배의 책임문제와 당권쟁탈문제로 밤낮 으르렁대고있다.

지금 《새누리당》은 선거패배의 책임을 지고 당상층부가 총사퇴한 가운데 비상대책위원회체제로 전환되였다.

그런데 그 우두머리자리에 친박계의 핵심인물인 원내대표 원유철이 들어앉으려 하자 비박계가 들고일어났다. 《공천학살》과 선거패배의 주범이 당을 틀어쥐는것을 용납할수 없다는것이다.

비박계는 《책임은 박근혜주변의 간신들이 져야 한다.》, 《친박의 패권주의식〈공천〉이 선거를 망쳐놓았다.》고 비난을 퍼부었다.

친박계는 또 그들대로 선거패배의 원인이 《옥새투쟁》까지 벌리며 당의 혼란을 조장시킨 김무성을 비롯한 비박계에 있다고 하면서 맞불을 놓았다.

이번 선거에서의 대참패로 《국회》 제1당의 지위를 야당에 빼앗긴 《새누리당》이 위기모면을 위해 탈당하여 무소속으로 당선된 비박계의원들을 복당시키려는 움직임을 보인 후 싸움은 더욱 격화되고있다. 비박계는 내쫓을 때가 언제인데 사죄없이 《복당이 이루어질줄 아는가.》고 위협조로 나오면서 배를 내밀고있다.

친박계로서는 비박계에 머리를 숙이자니 선거패배의 책임을 인정하는것으로 되고 또 비박계가 당을 타고앉아 백주무르듯 하는것을 용인할수도 없으니 정말 이만저만 고민이 크지 않다. 그래서 《친박이니 비박이니 따질 겨를이 없고 우리모두의 책임》이라는 뻐바른 론리를 고안해냈지만 비박계는 《친박계 책임론》을 계속 주장하고있다.

비박계는 한발 더 나아가 친박계의 핵심인물들이 전부 당내 모든 권력을 포기하고 2선으로 물러나며 《당만이 아니라 청와대도 변해야 한다.》고 압박하는 판이다. 당내주도권을 저들에게 넘기라는 암시이다.

비박계가 탈당했던 자기 과의원들의 복당조건으로 권력포기를 요구하는데 발끈해난 친박계가 우리가 다 죽은줄 아느냐 하는 식으로 나오면서 《선별복당》을 운운했지만 소용없었다.

비박계는 《선별적인 복당이란 있을수 없다.》고 반발하면서 원유철의 사퇴를 계속 고집하였다.

날로 거세여지는 비박계의 퇴진압력에 원유철이 자기도 하고 싶어 하는것이 아니라고 하소연을 했지만 통할리 만무하였다. 마빠난 친박계가 원유철이 림시로 비상대책위원장직을 수행하게 하는 타협책을 내놓았지만 그것마저도 거부당하였다.

현재 이 두 무리가 《여기에서 밀리면 끝장》이라는 인식으로 저들의 주장을 굽히지 않고있어 《새누리당》내에서는 최악의 경우 분당사태가 빚어질수도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울려나오고있다.

선거이후 더욱 심화되는 여적 당내부의 계파싸움은 얼마 남지 않은 지지자들마저 등을 돌려대게 하는 결과를 초래하고있다.

얼마전에 있은 여론조사결과에 의하면 《새누리당》에 대한 지지률은 사상 최악에 이르렀다.

《새누리당》내부의 치렬한 개싸움에 대해 언론들은 《자기반성없는 〈새누리당〉》, 《패배는 네탓, 계파싸움 재현》 등으로 평하고있다.

여론들과 분석가들은 두 계파의 싸움질이 전당대회가 다가올수록 더욱 치렬해질것이며 그것이 해소될 기미는 전혀 보이지 않는다고 하면서 망조가 든 여적당을 야유조소하고있다.

키도 돛도 없이 정처없이 표류하는 《새누리당》호를 남조선민심은 경멸의 시선으로 지켜보고있다.

본사기자 장윤남

악정이 초래한 응당한 귀결

인민을 버린자 인민의 버림을 받기마련이다. 이번 20대 괴뢰국회의원선거결과가 그 대표적실례이다.

이번 선거전야에 박근혜가 갖은 감언리설로 인민들을 우롱하려 하였으나 남조선민심은 역도의 더러운 면상을 후려갈기며 천하악녀의 반인민적악정에 준엄한 심판을 내리였다.

경제와 민생은 최악의 파국에 처하고 각종 참사와 범죄 등 사회악이 더욱 판을 치는 그야말로 사람 못살 남조선의 현실은 박근혜가 빚어낸것이다.

박근혜역도가 민심을 기만하여 권력의 자리에 올라앉은 이후 일어난 대형참사들만 놓고보아도 역적패당의 반인민적악정을 잘 알수 있다.

소름끼치는 《세월》호대참사와 서울지하철도에서 일어난 전동차충돌사고, 인천시의 영종대교에서 발생한 100여대의 자동차충돌사고, 《돌고래》호침몰사고, 전라북도 군산항에서 있은 대형질배침몰사고 등 각종 사고들이 그야말로 꼬리를 물었다.

오늘도 남조선에서는 차디찬 남바다에 수장되여 억울한 죽음을 당한 어린 생명들의 령혼이 떠돌고 유가족들이 터치는 피의 절규가 그치지 않고있다.

2년전 《세월》호침몰당시 시간적여유가 충분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뢰패당은 고의적으로 구조를 태공하였으며 더우기 박근혜는 침몰하는 배안에서 수백명의 어린 학생들이 살려달라고 소리치며 손톱이 다 빠지고 손가락이 골절되도록 벽을 허비면 그때 7시간동안이나 판장을 보았다. 그리고는 사건의 진상규명과 책임자처벌을 요구하는 인민들을 무작정 《종북세력에 의해 움직이는 집단》, 《불순세력》으로 몰아 가혹하게 탄압하였다.

바다에서의 재난이 어찌 《세월》호대참사뿐이겠는가. 지난해에만도 남조선에서는 2012년에 비해 무려 2배나 많은 2740건의 해양선박사고가 발생하였고 그 결과 112명이 죽거나 실종되였다.

또한 박근혜의 집권 3년동안 교통사고는 년평균 21만5000건이나 일어나고 사망자와 피해자수는 33만3000여명에 말하여 오늘 남조선은 세계 1위의 교통사고지역으로 되였다.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자수도 다른 주요자본주의나라들에 비해 무려 2-4배나 많아 남조선은 세계적으로 로동안전조건이 제일 렬악한 곳으로 오명떨치고있다.

박근혜역도의 무능력과 무책임은 수많은 사망자와 감염자를 낳고 온 남조선땅을 아비규환의 수라장으로 만든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사태를 초래하였다.

당시 청와대것들은 인민들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아무런 대책도 세우지 않고 저들부터 먼저 살겠다고 얼감지기를 설치한다 어쩐다 하며 북닥소동을 피워대여 민심의 분노를 폭발시켰다.

력대 괴뢰집권자들은 대형참사가 발생하면 《대국민담화》나 기자회견 등을 통해 사과하는 흉내라도 냈다. 그런데 박근혜역도는 한사코 책임을 회피하고 남만 탓하며 파렴치하게 놀아대고있다. 오죽했으면 남조선언론들이 위기상황이 발생하였을 때 마땅히 《지휘탑》이 되여야 할 집권자가 이토록 무능하고 무책임할수 있는가고 역도를 신랄히 비난하였겠는가.

이처럼 온 남조선땅을 지상과 지하, 바다와 하늘 어느곳이나 할것없이 마음놓을데가 없는 생지옥으로 만든 역적패당은 이번 선거에서 응당한 대가를 치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근혜는 여전히 반성의 말 한마디 없이 머리를 뻣뻣이 쳐들고 《일자리중심의 경제성장》이니, 《행복하고 활기찬 사회건설》이니 하는 얼빠진 수작만 늘어놓고있다.

낯짝에 온통 살기가 떼친 박근혜를 그냥 두었다가는 또 어떤 끔찍한 화를 당할지 알수 없다는것이 남조선민심이 내린 결론이다.

《악속과 신뢰를 저버린 파렴치의 극치》, 《저런 〈대통령〉밑에 있는 민중이라니 창피해 못 견디겠다.》, 《거짓과 부정, 비리의 몸통 박근혜 퇴진하라.》고 절규하던 남녘인민들은 이번 선거에서 반역《정권》심판의 표를 던져 역도에게 속시원히 한풀이를 하였다.

장일향

ㄱ-610689 (정기간행물번호 제13003호)(정기간행물발송특별 위급승인 제3호) 전 화: 교환 373-2312, 편집국 373-1328, 본설원실 373-5428, 당력사교양부 373-5528, 당생활부 370-4628, 사회주의교양부 372-3628, 공업부 373-0263, 농업부 373-5628, 과학문화부 372-4628, 조국통일부 372-4882, 국제부 373-4728, 사진보도부 373-0712, 특파기자부 372-4328. 편집위원회